공약과 기만

평양출판사
주체101(2012)년

차　　례

머 리 글

리명박이 집권한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남조선사회에는 래일에 대한 희망은 없고 비관과 절망만이 떠돌고있다.

민생파탄의 암흑지대로 만든 반인민적《실용정부》의 악정에 대한 인민들의 울분의 웨침이 차넘친다.

누구때문인가.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이다.

《대통령》이 되면 남조선을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일류국가 100대공약》이라는것을 내놓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다.

리명박은 남조선인민들과 했던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독재부활과 파쑈폭압으로 남조선사회를 민주화의 불모지로 만들었다. 또한 외세종속적이며 친재벌적인 정책으로 남조선경제를 파국으로 내몰고 인민들을 극빈의 칼벼랑으로 떠밀었다.

《실용정부》아래서 갈수록 어렵게 돼가는 민생에 격분

한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너도나도 리명박을 규탄배격하는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실용정부의 지나온 기간은 우리 민중이 불통과 거짓, 고통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체험한 나날이였다. 화려한 공약들을 쏟아놓으며 실용정부라는 문패를 달아놓았지만 그것이 빚어낸것은 민중의 원한과 저주뿐이다. 선거공약으로 부르짖었던 성공시대는 오늘에 와서 서민암흑시대로 변했다.》고 단죄하고있다.

남조선사회의 현실은 리명박이 내놓았던 화려한 공약들은 인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여 자기의 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간상배, 권력광신자의 일대 사기공약이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1. 파탄된 《경제살리기》공약

리명박은 《대통령》후보시절부터 민심을 끌어당길 흉심밑에 자기를 《경제전문가》로 내세우면서 집권하면 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서민생활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올것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살리기 10대과제》니, 《서민생활개선대책》이니 하는 갖가지 《경제살리기공약》들을 람발하며 민심을 유혹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아무런 현실성도 실행성도 갖추지 못한 허황한것들이였다.

갈수록 파국적운명에 빠져들고있는 남조선경제의 현실과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은 리명박이 내건 경제공약들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반인민적인가를 세상에 폭로하고있다.

《747공약》은 어디로

리명박의 경제살리기공약에서 가장 대표적인것은 《747공약》이였다.

해마다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국민소득을 4만 US$로 올리고 남조선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747공약》은 리명박을 권력에로 떠밀어준 《1등공약》이라 할수 있었다.

하지만 집권기간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내여 《경제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흰소리를 치던 리명박의 《747공약》은 오늘에 와서 녹아내린 얼음처럼 온데간데 없어지고말았다.

남조선언론들이 밝힌 자료에 의하더라도 리명박이 집권한 직후인 2008년에 남조선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져 199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였으며 2009년에는 겨우 0.2%에 불과했다.

2011년 4월 국제통화기금은 남조선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이후에도 4% 계선을 벗어나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예상되는 세계평균경제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치

라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소득》 4만US$와 《7위 경제국》공약도 도저히 실현불가능한것으로서 남조선은 물론 외국의 경제전문가들까지도 이에 대해 바다를 퍼내 땅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공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되자 《실용정부》패들은 《747공약》은 임기내의 목표가 아니라 준비를 갖추어 앞으로 10년내에 달성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공약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는 집권초기부터 이미 《747공약》의 허황성과 비현실성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아무런 가망도 없는 공약을 들고나온 리명박을 신랄히 비난하고있다.

사실 리명박이 집권한 후부터 남조선경제는 성장은 고사하고 침체와 파국의 구렁텅이로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더우기 2008년 9월 미국에서 다국적금융회사인 《레이만 브라더즈》가 파산되면서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에 예속된 남조선경제를 제일먼저 강타하였다.

남조선신문 《아시아경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리명박은 출범과 함께 세금은 줄이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푸는 시장친화적성장위주의 경제관을 제시했다.

이는 7% 성장과 4만US$ 소득, 세계 7위의 경제를 일구겠다는 <747공약>으로 집약되였다.

하지만 2008년 9월 미국의 레이만 브라더즈 파산이후 불어닥친 글로벌금융위기로 747은 허울로만 남아버렸다.

경제성장률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2.3%와 0.2%로 수직하락했다.

747실현은 빛좋은 개살구로 되여버렸다는것이 여론의 전체 방향이다.》

사실 리명박에게는 《747공약》을 실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으며 외세에 예속된 남조선경제를 가지고 《747공약》을 달성한다는것은 그야말로 대낮의 헛꿈과 같은것이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리명박은 권력을 잡기 위해 아무런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기적인 《747공약》을 떠든것이다.

오늘 허위적인 《747공약》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격분은 대단히 높다.

2012년 2월 리명박집권 4년을 맞으며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과 론평들에서 《리명박정권의 집권 4년은 한마디로 국민절망시대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기만한 747공약》, 《뻔뻔스러운 MB정부》, 《747장미빛공약은 하늘로 날아났고 잘사는 국민을 약속한 국

민성공시대구호는 이미 빛이 바랬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의 한 신문이 대학과 연구소의 경제관련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명박《정권》의 4년경제정책평가조사에서도 락제를 맞았다.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 역시 《실용정부》의 기만적인 《747공약》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공약》, 실업자 400만명, 《국가》채무 400조원, 가계빚 1 000조원을 초래한 빈 약속이 되였다고 규탄하고있다.

이것을 반영하여 남조선의 한 가수는 리명박의 《747공약》은 《다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까지 창작해 공연까지 하였다.

사실들은 《747공약》이 얼마나 허황하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을 위해서라면 일대 사기공약도 서슴지 않는 리명박의 후안무치성을 신랄히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살길이 없어진 중소기업

리명박의 선거공약에는 《중소기업성장》공약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까닭이 있다.

남조선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있으며 남조선국민총생산액의 과반수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의 대부분(88%)도 중소기업들에서 일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경제구조상 재벌기업들에 명줄이 잡혀있는 중소기업들은 언제 한번 허리를 펴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중소기업공약을 내놓는가 하는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수 있는 관건적요인의 하나로 되여있었다.

리명박이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에서 출세한 인물이고 재산도 적지 않은것을 약점으로 본 선거경쟁자들은 리명박이 집권하면 대기업에 리롭고 중소기업에는 불리한 경제정책을 취할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리명박은 중소기업들에 추파를 던지는 공약들을 람발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

치적 및 금융지원을 실현하고 중소기업발전을 방해하는 각종 법적규제들을 해제하며 혁신중소기업을 5만개 새로 만들어 5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중소기업지원》공약이 바로 그것이였다.

허나 이것은 겉치레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지원》을 떠들던 리명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재벌들에게 유리한 경제정책과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 결국 리명박의 집권후 중소기업들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였다.

리명박이 《대통령》이 된 직후인 2008년 상반기에만도 남조선에서는 5 0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파산되였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으로 련이어 부도상태(빚을 물지 못하여 파산상태에 직면한것)에 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2009년초부터 2010년 1월사이에는 2 54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파산되거나 구조조정(경제불황으로 기업의 인원이나 생산을 축소하는것)에 들어갔으며 4만 730여개나 되는 기업이 자기 자본의 400～500%에 달하는 방대한 부채를 걸머진 《신용불량기업》으로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원유, 동,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원자재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70%가 심각한 원료난, 자재난으로 생산물의 량

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과 남조선의 중소기업부문은 무리파산과 극심한 경영난으로 붕괴직전에 놓이게 되였다.

중소기업들이 파산의 나락에서 헤매이다나니 남조선의 대학졸업생들과 청년들속에서 중소기업에 입직하는것을 꺼리거나 천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게 되였다.

《실용정부》패당의 반공화국, 반통일정책으로 인한 북남관계악화에 의해서도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녹아나고있다.

사실 북남경제협력에 참가하는 남조선의 기업체들은 절대다수가 중소기업들이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과 민족의 대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대범한 조치와 아량속에 남조선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화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적은 투자로 많은 리득을 얻고있었다.

하지만 《흡수통일》을 본질적목표로 삼고있는 리명박패당은 악랄한 대결정책, 반통일정책으로 경제협력사업을 한사코 막아나섰다.

리명박일당은 고의적인 도발로 금강산관광객피살사건과 《천안》함사건 등을 일으켜놓고는 이를 구실로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과 북남간의 교류와 래왕, 경제협력

을 막아나섰다.

하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되고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있다.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남조선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관광중단으로 1 17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하거나 몰락직전에 있으며 3만여명의 로동자들이 생계를 잃거나 위협을 받고있다.》고 폭로했다.

2011년초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참가하던 중소기업인들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확인한데 의하더라도 조사에 참가한 중소기업들모두가 평균 남조선돈으로 38억 7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 중소기업들도 재벌들을 위한 당국의 고환률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다.

2011년 4월 남조선의 중소기업중앙회가 261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2분기 환률 및 수출여건 조사》결과 지속적인 환률하락으로 86.4%의 중소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있다고 대답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도 40.3%나 되였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막심한 생활상 고통에 시달리고있다.

2011년 5월 22일 남조선의 어느 한 직업소개회사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6%가 《나는 근로빈곤층》이라고 대답했다. 남조선에서 근로빈곤층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과반수가 초보적인 생활도 꾸려나갈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전적으로 《실용정부》에 책임이 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추지 못한다고 사실 리명박은 중소기업지원과 경영활동개선을 말로만 떠들고 실지로는 권력을 차지한 직후부터 《대기업위주의 성장》을 내세우며 대기업들과 재벌들에게 유리한 경제 및 법적조치들만 련이어 취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이라는것을 놓고보아도 리명박의 《중소기업공약》실행의 기만성을 알수 있다.

《실용정부》패거리들은 이 《법안》이 《경제를 잘되게 하는것》이라고 극구 추어올리면서 이전 《정권》에서 잘못되였던 《세금정책을 바로잡아 기업들을 편히 하는 법안》이라고 광고하였다.

하지만 내용은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과 재산관련부분의 세금만을 줄이게 되여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과 재산이 없거나 많지 못한 중소기업들과 일반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것이 거의나 없다.

결국 《종합부동산세개편안》으로 리득을 볼것은 부자들과 대기업뿐이다.

2012년 1월 29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은 《종합부동산세개편안》으로 제일 큰 리득을 본것은 리명박이라고 하면서 개편안시행으로 그는 이전보다 무려 9분의 1이나 세금을 적게 내게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리명박이 들고나온 《종합부동산세개편안》이라는것이 《경제살리기》의 미명아래 재벌들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리익을 주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한것이다.

리명박의 로골적인 친재벌경제정책에 기고만장한 남조선의 재벌들은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전문하던 분야까지 모조리 독차지하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대재벌들은 중소기업들에 주던 부분품생산물량들을 저들의 새끼회사들에서 만들게 하여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하는가 하면 중소회사들의 전통적기업령역으로 되여있는 상품의 도매와 판매시장까지 막대한 자

금력을 앞세워 휩쓸어버리고있다.

지금 리명박일당의 반중소기업정책에 격분한 남조선의 중소기업인들은 올해의 《총선》과 《대선》에서 현 당국을 단호히 심판할것이라고 벼르고있다.

허황하고 기만적인 《중소기업공약》으로 중소기업인들을 롱락하는 실용패당이 남아있는 한 남조선에서 파산의 함정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것이다.

《빚잔치》

리명박이 《대통령선거》에서 떠들어온 《경제발전》공약의 허위성과 실현불가능성은 빚문제 하나만 놓고도 알수 있다.

빚은 현금이나 재산상으로 남에게 물어야 할 부채로서 일반적으로 대상의 경제상태를 가늠할수 있는 명확한 기준점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은 《정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산더미같은 빚에 짓눌려 허덕이고있다.

우선 남조선의 가정세대들이 진 빚(가계부채)이 기하급

수적으로 불어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이 집권한 첫해인 2008년 남조선의 가정세대들이 진 빚은 5 476억 US$였는데 2011년에는 근 1조US$로 2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2009년 상반기 남조선주민가정들의 평균실질소득은 2008년 상반기에 비해 0.2% 상승한데 비해 빚을 지는 속도는 5.7%로 증가하는 등 소득에 비해 빚이 훨씬 빨리 늘어나 남조선에서는 가정들이 진 빚이 아무리 물고 물어도 끝날줄 모르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최근에는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리자만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 가정부채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2010년말 남조선에서는 원금상환없이 리자만 내는 사람들의 비률이 78.4%에 달했다.

리명박이 집권한 후 《국가》채무도 급격히 불어났다. 남조선의 《국가》채무는 2008년에 벌써 3 083억US$에 달하였다. 그것이 2010년에는 3 415억US$로 늘어났으며 2011년말에는 4 000억US$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공공기업들이 진 빚에 대한 지불보증 등으로 남조선당국이 간접적으로 지고있는 채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한다.

남조선당국이 진 《국가》채무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은 이것을 다 갚자면 남조선주민 1인당 1만 6 000US$정도씩 물어도 모자란다는 사실만 들어도 충분하다.

《실용정부》가 다른 나라나 외국의 다국적기업체들에 진 빚인 대외채무 또한 엄청난바 2010년에는 대외채무가 3 599억 8 500만US$로서 전해에 비해 근 146억US$나 증가했다.

더구나 당장 갚아야 할 외채만 해도 굉장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물어주면 남조선경제가 거덜날 정도이라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더미에 경제와 민생이 멍들고있다. 민생회복잔치가 아니라 돈더미상을 놓고 빚잔치를 하고있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이 상상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실용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비현실적인 경제정책에 있다.

자본주의사회가 다 그러하듯이 남조선에서도 절대다수의 중소기업들과 가정들은 얻어지는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가정생활을 유지할수 없다. 그래서 할수없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리자가 붙은 자금을 대출받을수밖에 없다. 지나친 금융대출로 벌어지는 피해를 줄

이기 위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기준금리를 정하고 무분별한 은행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있다.

하지만 리명박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부터의 타격을 피하고 경제를 수습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낮게 유지해오던 은행금리를 더욱더 떨구었으며 제한없는 대출을 하게 하였다.

결과 어렵게 된 기업활동과 생활형편으로 인한 중소기업들과 개인, 가정들의 은행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였으며 암담한 경제현실로 이는 고스란히 빚으로 전환되게 된것이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은 《경제살리기공약》을 실행한다면서 외국으로부터 수백억US$의 자금을 꾸어다 시장에 투입하였지만 효과가 없어 그것도 빚으로 되고말았다.

천문학적규모로 늘어난 빚더미는 남조선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남조선의 경제형편이 개선되려면 기업투자와 함께 민간소비가 증대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세대들이 년간소득의 1.4배에 해당되는 빚을 지고있고 해마다 막대한 리자를 물어야 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은행들이 《무제한한 대출로 인한 부정적영향을 없앤다.》는 리유로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고있기때문에 민간소비가 심히 침체되고있다.

결국 민간소비가 침체되는데 따라 기업리윤이 감소되고 리윤이 감소되자 기업들의 투자까지 줄어드는 련쇄반응이 일어나면서 경제위기수습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것이다.

또한 이 빚더미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실용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규제완화책동으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면서 2008년말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전체 가정부채의 약 50%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런데 수요를 타산하지 않고 마구 집들을 짓다나니 공급이 과잉되는 바람에 팔리지 않는 주택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미 팔렸던 주택은 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의 금융기관들은 대출한 3 000억US$이상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자금을 제대로 걷어들이지 못해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대출자금을 빌린 가정들과 개인들은 그들대로 이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복해 결국 이것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씨로 변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가계부채를 두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

는 《남조선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가계부채》라고 평가하면서 《가계부채에 짓눌린 남조선》,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새로운 뢰관으로 되고있다.》고 경고하였다.

옛말에 《빚진 종》이라는 속담이 있다.

빚진 사람은 자연히 종과 같이 비천한 처지에 빠지게 됨을 비겨이르는 말이다.

개인이나 가정이 빚을 진다면 곧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국가가 빚을 진다면 경제는 물론 나라까지 망한다는것은 엄연한 진리이다.

1 000만 실업자

남조선에서 직업을 얻는것은 생존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실업문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는것으로써 력대 남조선당국자들의 풀수 없는 골치거리로 되여왔다.

리명박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기간 1년에 60만개씩 모두 3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실업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리명박의 공약은 시작부터 빈말로 되고말았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된데다가 리명박이 경제살리기의 미명하에 강행한 《친재벌경제정책》을 좋은 기회로 여긴 재벌기업들이 생산과 판매의 감축을 구실로 수많은 로동자들을 해고하다나니 실업자는 줄어든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다.

남조선에서 2008년부터 2009년 4월사이에만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는 무려 50만명이상 늘어나 350만여명에 달하였고 2010년에는 400만명으로 되였다. 여기에 하루 또는 몇개월씩 계약을 맺고 겨우 연명이나 할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림시 일용직로동자와 같은 반실업자도 860여만명이나 된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에는 세대주가 직업이 없는 가정만 하여도 수백만세대에 달하고있다.

결국 오늘날 남조선의 경제활동인구가운데 일자리가 없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있지 못한 사람은 지난해말 무려 1 000여만명에 달하게 되였는데 이것은 1996년이래 최고기록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실업문제는 특히 청년들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

과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것은 민족과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청년들의 교육과 직업보장에는 무엇보다 일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하지만 리명박패당이 집권한 후 남조선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무리지어 거리를 헤매이고있다.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1년 남조선에서 청년실업자는 근 150만명에 달하였다.

심각한 직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곧바로 실업자로 되고있다.

2010년에 대학을 졸업하자 실업자가 된 청년들의 수는 34만 6 000명 이였다. 2011년 2월 남조선의 한 신문이 졸업을 앞둔 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졸업을 해도 일자리를 구할수 없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근 40%에 달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실업자가 되는 현실앞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하거나 휴학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대학은 《실업자양성소》로, 대학졸업생들은 《백수군단》으로 불리우고있다.

청년들의 실업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남조선항간에서는 《이태백》(20대태반이 백수건달), 《십오야》(15살만

되면 앞이 캄캄하다.),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건달이 되는것을 생각해야 한다.), 《삼일절》(31살이면 취업길이 막혀 절망한다.), 《사필귀정》(40대에는 반드시 퇴직당한다.)라는 웃지 못할 말들이 돌아가고있다.

실업자대군이 쏟아져나오면서 《실업대란》, 《취업전쟁》이라는 새로운 어휘도 생겨났다.

간신히 일자리를 유지하고있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해고될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과 실업공포증에 시달리고있다.

외신들은 남조선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사태를 놓고 죽음의 재앙을 몰아오는 태풍에 비유하여 실업태풍이라고 부르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최악의 실업사태는 각계층 인민들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리명박패당이 《대통령선거》때 약속한 《실업문제해결》공약을 실현할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반정부집회와 시위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의 심각한 실업문제는 리명박이 내놓은 일자리공약이라는것이 아무런 실현가능성도, 해결방책도 없는 빈말공부이며 권력을 목표로 꾸며낸 기만의 허튼나발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외세에 제물로 바쳐진 남조선경제

남조선인터네트에 력대 권력자들의 《경제치적》을 두고 《밥가마이야기》라는 글이 퍼져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리승만은 미국에서 돈을 빌려 가마를 하나 장만했는데 박정희가 농사지어 해놓은 밥을 최규하가 먹으려고 뚜껑을 열다가 손만 데였고 전두환이 가로채가지고 깨끗이 비웠다. 남은 누룽지를 로태우가 물을 부어다 퍼먹었고 김영삼은 남은게 없나 하고 박박 긁다가 가마에 구멍이 나자 엿과 바꿔먹었다. 리명박은 선임자가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어 사온 고장난 전기밥가마를 고친다고 하면서 장작불우에 올려놓고 신나게 부채질하다가 다 망가뜨렸다는것이다.

외세가 없으면 순간도 존재할수 없는 남조선경제의 취약상과 그를 더욱더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있는 리명박의 사대매국근성에 대한 신랄한 야유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다면 리명박은 왜 이런 조소를 받게 되였는가.

리명박의 선거공약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공동체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수출을 늘이는 방법으로 침체에 빠진 남조선경제를 살리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하지만 이는 외세에 예속될대로 예속된 남조선경제를 종속의 올가미에 더 깊숙이 밀어넣는 반인민적공약이였다.

사실 남조선경제의 외세에 의한 예속성은 심각한 정도를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국민총소득》대비 수출, 수입비률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2002년 71.6%에서 2008년 117.7%로 증가했다. 또한 2009년에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작성한 주요 자본주의나라 경제지표에 의하더라도 이 비률은 남조선이 단연 첫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만큼 외국에 대한 경제의 의존성이 심각하다는것이다.

외국자본에 의한 경제의 예속화는 더 심하다. 1990년대말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는 119억US$, 주식투자가 256억US$였지만 10년후에는 외국자본 직접투자는 1 196억US$, 주식투자는 2 480억US$로서 거의 10배나 증가하였다.

이중 대부분이 미국자본인데 직접투자의 경우 1962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의 32%를 미국자본이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남조선에는 진정한 자기 기업이라고는 거의나 없다.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주요재벌기업들의 총지분률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47.4%, 포스코(제강기업) 49.8%, SK텔레콤(전자기업) 47.5%, KT(통신기업) 47.1%가, 금융기업의 경우 국민은행 82.3%, 신한금융지주 58.1%, 삼성화재 57.2%, 하나금융지주 78.3% 등으로 주요기업들의 지분이 50%안팎에, 많게는 80% 이상이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에게 예속된 실정이다.

그런데 남조선경제의 이러한 예속성과 기형성이 사대매국적인 《한미동맹관계우선》을 내들고 미국에 모든것을 섬겨바치기 위한 리명박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더욱 심각해졌다.

원래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은 2007년 6월 이미 진행되였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없애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규모가 작고 자본과 기술이 외국독점자본들에 얽매여있는 남조선

이 그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였다.

실지로 당시 가조인된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는 의무조항이 미국은 7개정도에 불과한 반면 남조선은 무려 55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협상내용에 불리한것이 들어있다고 트집을 걸다가 남조선에 리명박《정권》이 들어서자 재협상을 강박해나섰다.

이는 남조선인민의 불같은 항거를 촉발시켰으며 각계층은 경제적예속을 심화시키고 불평등만 강요하는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한결같이 배격해나섰다.

리명박에게 조금이라도 민족적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미국의 횡포한 요구를 단호히 물리쳐야 했을것이다.

그러나 대미굴종, 친미숭배의식이 골수에 들어찬 리명박은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자본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대미수출을 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몽땅 받아들였다.

결국 2010년 12월 진행된 제3차 재협상에서 미국의 강도적주장이 그대로 담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문》이 발표되게 되였다.

3차재협상에서 미국은 남조선산 자동차는 그 크기에 관

계없이 5년이후에야 관세를 철폐하며 미국자동차업계가 피해를 입는다고 제기될 경우에는 남조선산 자동차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수 있다는 불평등조항을 새로 첨부하였다. 그대신 남조선당국은 2014년으로 정해졌던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철페시기를 2016년까지 연장할수 있게 되였다.

결국 미국은 남조선에 아무런 리득도 없는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철페기간의 2년연장을 리명박에게 던져준 대신 자동차수입관세철페후에도 남조선산 자동차의 미국시장판매를 철저히 봉쇄할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파산위기에 처한 저들의 자동차업계를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이 협상이 얼마나 굴욕적인가 하는것은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재협상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리명박에게 감사를 주고싶다고까지 말한 하나의 사실만 보고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으로 남조선은 국내총생산액의 10%, 총수출의 13%, 제조업일자리의 35%를 맡고있는 자동차수출 등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이에 대해 《문제는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발효되면서 경제예속성이 더욱 심각해질것이라는 점이다. 한가지 실례로 남조선의 자동차업체들은 해마다 리윤의 80%이상을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독점업체들에 기술이전비, 특허비, 부속품대금으로 바치고있다. 즉 자동차 100대를 팔아야 겨우 두대분의 자금이 남조선자동차업체들에 차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니 자동차분야에서의 미국의 <양보>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것이다.》라고 폭로했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재협상을 미국의 강압에 굴복한 대미퍼주기협상,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굴욕외교의 결정판, 《한일합방》이후 최고의 굴욕협상이라고 규탄배격하면서 그의 《국회비준》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패들은 2011년 11월 22일 경찰들까지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날치기의 방법으로 이를 강압통과시켰으며 올해 3월 15일 정식 《발효》시켰다.

지금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강제발효에 격분한 남조선의 야당들과 인민들은 4월《총선》에서 리명박패당을 심판하고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여 이를 전면 재협상하겠다고 벼르고있다.

하지만 뻔뻔스럽게도 리명박패당은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수출주도형경제를 계속 지탱하자면 남조선을 동북아시아의 《자유무역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력설하면서 일본과 유럽동맹과도 이러한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체결놀음을 계속 내밀고있다.

예속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책동만이 아니라 비굴한 리명박의 외자구걸행위에 의해서도 외국자본에 의한 남조선경제의 예속성, 종속성, 허약성은 더욱 심해지고있다.

리명박이 집권후 미국행각때마다 《대통령》이라는 체면까지 집어던지고 자기를 남조선이라는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불러달라며 돈구걸을 하는가 하면 일본에 가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과거불문》을 떠들며 외자동냥쪽박을 내밀어 세상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리명박은 《외국인투자를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기간을 대폭 확대해주는 등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결과 지금 외국독점자본들은 남조선주식시장의 30% 특히 은행업분야에서 주식의 60%이상을 보유하고 남조선경제를 저들의 입맛에 맞게 좌우지하고있으며 주식배당금명

목으로 해마다 수십억US$이상을 빨아들이고있다.

친미사대, 외세숭배를 체질화하고 미국이 없으면 남조선경제의 활로가 없다는 예속경제의식이 꽉 들어찬 《실용정부》패당이 있는 한 남조선경제는 외국독점자본의 올가미에 철저히 매인 수치스러운 노예경제로 더욱 전락되고 남조선의 경제주권은 여지없이 유린, 롱락당하리라는 것이 리명박의 집권 4년간 남조선인민들이 깨달은 쓰라린 교훈이다.

파산직전에 이른 남조선농업

남조선에 리명박《정권》이 들어선 후 《실용》패당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에 격분한 농민들의 반리명박투쟁이 날이 갈수록 격렬히 벌어지고있다.

2010년에만도 농민들의 반《정부》운동은 월평균 4차례씩 진행되였고 2011년에는 더욱 세차게 벌어졌는데 그 회수는 2010년에 비해 2배에 달하였다.

남조선농민들속에서 반리명박기운이 고조되고있는것은 《실용정부》의 농업발전외면정책으로 남조선농업이 파산직전에 이르고 농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령락되고있기때

문이다.

리명박은 《대선공약》에서 수입농산물의 《국산》대용, 수출농산물범위의 획기적확대, 농업분야에서의 북남협력사업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업을 추겨세우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농민들의 수익을 높여 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도록 《농업인소득보전특별법》, 《농가부채동결법》 등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겉으로만 화려한 리명박의 농업부문공약은 농민들에게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였다.

리명박이 공약리행을 운운하며 들고나온 《농업경쟁력강화방안》이라는것 하나만 놓고보자.

리명박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자면 농업을 기업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자본침투규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자 외국의 투기자본들은 특수작물이나 단기적인 리윤작물재배분야에만 많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들이밀었다. 결과 남조선농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지배가 더욱 확대되고 전통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절대다수 농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리명박의 반역적농업정책은 남조선농업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있다.

2012년 2월 남조선의 농촌경제원구원은 2011년 농업인구가 296만 5 000명으로 1960년대의 1 450만명으로부터 대폭 줄어들고 농경지면적은 230여만ha에서 178만 2 000ha로 감소되였다고 하면서 리명박《정권》이 들어선 후 농업전체가 급속히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있다고 폭로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알곡생산량도 계속 줄어들고있어 식량자급률은 겨우 2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리명박이 집권한 후 농민들의 생활도 해가 갈수록 령락되고있다.

2009년에 벌써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년평균수입의 차이는 6배나 벌어졌으며 농촌주민세대가운데 최저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령세농가는 전체 농가의 41%, 농사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다른 업종을 겸하는 농가비률은 40%나 되였다.

남조선의 축산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1년에는 구제역으로 하여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파산당하거나 막대한 빚을 지게 되였으며 절망한 축산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사건도 계속 벌어졌다.

여론들은 농업을 죽이는 리명박당국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끝에 닿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투쟁기운이 큰 폭풍을 안아오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자의 반인민적인 농민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증오는 2011년 4월 남조선의 한 농업단체가 발표한 현 《정부》 농업정책평가보고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였다. 이 단체는 3월 두차례에 걸쳐 단체산하의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지회회장 224명을 상대로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 34. 59점으로 락제점수가 나왔다고 한다.

2012년 1월 11일 남조선의 전국농민회총련맹은 청와대앞에서 쌀값안정과 옳바른 농업정책실시를 요구하는 쌀포대쌓아놓기시위를 벌리면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농업말살정권과 정치인에게 농민의 심판을 내릴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사를 외면하고 농업발전을 소홀히 하며 농민들의 생산활동과 생활형편개선에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는 권력자들의 결말은 언제나 비참했다는것은 력사가 남긴 교훈이다.

2. 빈말이 된 《국민생활개선》공약

《국민생활개선》은 리명박이 《대통령선거》때 늘 외웠던 단골공약중의 하나이다. 리명박은 인민들을 괴롭히는 높은 물가와 교육비, 세금과 주택문제를 해결하여 서민들이 실지 몸으로 느낄수 있게 획기적인 《국민생활개선》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나아지기는커녕 더더욱 한심해지고있으며 잘사는 부자는 더욱 잘살고 못사는 절대다수 인민들은 더욱 못사는 부익부, 빈익빈이 증대되고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

《강부자정권》의 《친서민정책》

리명박이 《대통령선거》때 내놓은 선거공약들에는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켜 살림살이에 쓰는 돈을 이전보다 30% 절약하도록 하며 생활보조금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늘여 서민들이 살림걱정을 모르도록 하겠다는것과 같은 이른바 《친서민공약》들도 있었다.

리명박은 자주 《서민》의 간판을 내걸고 재래시장에 나가 물건들을 사고 지짐을 사먹는 놀음을 벌렸는가 하면 복지예산을 늘여 빈민세대들에 일자리를 주고 낮은 리자로 장기대출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안에 서민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온다 하면서 《서민공약》을 실천하듯이 생색을 내였다. 자기는 《서민출신》이라느니, 《서민정책을 펼쳐왔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느니 등의 낯간지러운 소리도 자주 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의 《서민공약》은 인민을 속여 권력을 쥐기 위해 꾸며낸 낯 두꺼운 사기공약이였다.

남조선에서 서민계층은 월평균소득이 남조선 전체 주민의 평균소득의 50%이하인 빈곤층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쪽방, 판자집 등 집아닌 집에서 살거나 임대주택에서 세방살이를 하고있으며 최저생계비조차 얻지 못하여 종교자선단체들의 얼마 안되는 지원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연명해가고있다. 더구나 남조선의 금융기관들에서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자금도 빌려주지 않아 생활처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리명박이 집권한 후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다는것이다.

2010년 하순 남조선당국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에 빈곤층세대수는 305만 8 000세대로서 인구수로 볼 때에는 700여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중 완전실업상태에 있는 세대수가 63%, 하루품팔이로 살아가는 세대는 14%, 나머지는 일정한 직업을 가졌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들이였다. 특히 《실용정부》가 친재벌, 부자정책에 매달린데다가 세계금융위기까지 들이닥치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령세상공인들이 무리로 파산몰락해 2009년 한해동안에만도 13만 4 725세대(하루에 약 370세대)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였다고 한다. 2010년에는 매달 3만~7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파산되여 빈

곤층으로 되였는가 하면 2011년에 들어와서도 어려운 생활처지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되였다.

심각한것은 빈곤계층속에서 대학졸업생들과 로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세대주가 대학졸업생인 빈민세대가 2006년 9.1%에서 2009년에는 11.7%로 늘어났으며 세대주가 60대이상인 빈민세대수도 2006년 35.1%에서 2009년에는 42.6%로 늘어났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대학졸업생들과 로인들속에서 빈민세대가 늘어나고 있는것은 경제형편의 악화로 대학졸업증을 가지고서도 일자리에 쉽게 취직할수 없는것과 함께 서민계층생활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로인세대들이 남보다 먼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빈곤계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있는것은 리명박이 입으로는 《서민공약실현》을 떠들면서 실지는 반서민정책을 마구 강행하여온데 그 원인이 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남조선의 대도시들에서 《뉴타운정책》을 실현한다며 서민들의 집을 빼앗아 한지로 내쫓다못해 불태워죽인것도 《실용정부》이며 《비정규직개정법》을 비롯한 각종 반로동자악법들을 만들어내여 수많

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빈곤자로 만든것도 다름아닌 리명박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야당《국회》의원들까지도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생활전쟁을 치르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리명박이 말해온 《서민공약》이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짓밟고 특권족속들과 자기들의 배만 불려온 서민배반정책, 특권층위주의 정책인것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서민 못살게 하는 서민대통령도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리명박은 서민들을 찾아가고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이는것이 서민정책인것으로 착각하고있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농수산물시장 아주머니를 껴안고 또 논두렁에 앉아 농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는것으로 서민대통령이 되는것은 아니다.》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리명박의 기만적인 서민정책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이대로는 더이상 못살겠다》, 《서민들을 우롱하는 <서민정책>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분노의 목소리들을 터치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거리로 떨쳐나서고있다.

없어진 《보금자리주택》

절대다수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은 자기 집을 쓰고사는것이다. 그럴 정도로 남조선에서 일반주민들이 제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2011년초 남조선언론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노란자위로 불리우는 지역의 집값은 남조선돈으로 평당 수천만원에 달하였다. 서울만이 아니라 인천과 대구, 부산 등 남조선 전지역에서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기 그지없다.

집값이 이렇게 높다보니 일반주민들은 물론 웬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집을 가진다는것은 하늘의 무지개를 잡는것만큼 까마득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당국자들에게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해결할것을 강하게 요구하여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리명박은 《주택공약》항목을 특별히 내오고 매해 50만호의 주택을 신설하여 값을 낮추거나 장기임대형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리명박의 주택보장공약에 대한 남조선주민들의 환상은 1년도 못 가서 깨여진 꿈으로 변하고말았다.

2009년초만 보더라도 그 전해에 비해 남조선에서 집없는 세대는 더욱 늘어났는바 전체 세대의 45%에 달하는 무려 700여만세대를 헤아리고있었다. 그중 세방살이를 할 돈마저 없어 쪽방, 판자집, 움막 등 집아닌 집에서 살고있는 사람은 68만세대나 되였다. 서울에만도 3 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처지가 전혀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며 밤을 보내고있다.

년간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장담한 서민용임대주택공약이라는것도 허풍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집들도 값이 비싸 일반주민들은 구입하지 못하고있다.

반면에 전체 세대의 6.6%에 불과한 극소수의 돈많은 특권층족속들은 평균 5채이상의 고급주택을 가지고 호화생활을 하고있는데 부자들이 살고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초호화아빠트가격은 보통 로동자가 100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어려운 수백만US$에 달하였다.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특권층부자 10명이 소유하고있는 살림집은 무려 5 508채에 달하였다

고 한다.

리명박의 주택해결공약의 기만성과 실패상은 2011년 2월 《한겨레》에 실린 《대선광고 국밥 할머니 집세 못내 쫓겨날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력력히 드러난다.

기사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리명박이 자기를 서민정치가로 둔갑하기 위해 TV광고에 출현시켰던 한 할머니가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된 사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TV광고로 리명박한나라당후보의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국밥집 할머니 강종순(71)씨. 리명박대통령취임 3주년을 맞아 찾은 강할머니의 가게는 한창 손님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안은 썰렁했다. 강할머니는 집세가 7개월째 밀려본것은 처음이라며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 집세가 장난이 아니다>라며 탄식했다. 강할머니는 벽에 붙인 리명박의 사진을 떼면 장사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하는 손님들까지 있다고 말하여 리대통령으로부터 리탈하고있는 민심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주민들의 주택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는것은 리명박이 공약만 요란히 걸어놓고 실지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데 있다.

리명박의 기만적인 주택문제해결공약에 쓴맛을 본 남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은 이것 역시 권력을 위해 만들어낸 사기공약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말로만 끝난 《로인공약》

부모들과 어른들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것은 젊은 세대의 도리이며 마땅한 의무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들을 공경하고 지극한 정성과 극진한 마음으로 받드는것을 인간례의의 첫째로 여기였으며 옛 이야기들에도 효자, 효녀, 효행의 교훈적인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로인공경의 례의가 거치장스러운 허식으로 모독받고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부모존경과 공대는 옛날의 전설로만 되고있다.

남조선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현상은 리명박이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은후부터 더욱 로골적이고 심각한것으로 번져지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노컷뉴스》 2011년 5월 10일부는 이렇게 전했다.

《5월은 일명 가정의 달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에게 폭력을 당하는 일명 <매 맞는 로인>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월 89살난 최모할머니는 50대 아들에게 장대우산으로 폭행을 당했다. 일용직로동을 하는 아들은 술만 마시면 할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아빠트계단에 쪼그려 앉아 밤을 지샜다.

알려진 로인학대건수는 2009년에 6 150건이였다. 1주일에 한번이상 학대를 당하는 사례도 877건 32%에 달했고 매일 학대를 받는다는 로인도 760명이나 되였다. 전문가들은 로인학대의 경우 은페성이 많기때문에 더 많을것이라고 하고있다.》

학대와 천시뿐아니라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는 로인수도 급격히 늘어나 커다란 사회적문제로 되고있다.

2011년 현재 남조선에는 최저생계비의 50%정도밖에 안되는 로령년금으로만 살아가는 로인비률은 전체 로령년금자수의 76.7%이고 집세를 물지 못해 쫓겨나거나 지하에서 사는 로인비률은 전체의 25.2%에 달하며 로인의 70%가 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아무리 빈곤한 처지에 있어도 살아있는 자식들이 한명이라도 있는 로인들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고있다.

결과 남조선에는 극빈층이지만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리유로 초보적인 생활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로인이 1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남조선에서는 최근년간 로인들속에서 범죄와 자살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존경과 대우가 말세기적지경에 이르고 그들의 생활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것은 리명박의 로인홀시정책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남조선유권자들가운데 고령세대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그래서 리명박은 《대선》시기 이들을 위한다며 여러가지 듣기 좋은 공약들도 들고나왔다.

거기에는 로인일자리를 해마다 10만개이상 만들고 로인년금을 2배로 늘이며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위하는 의료봉사를 비롯해 숱한것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리명박이 집권후 로인실업자수는 2010년 8만여명으로 2007년보다 무려 2.2배나 늘어나고 로인년금 2배상승과 고령자우선의료봉사공약은 하늘로 날아갔다.

특히 2011년에는 《4대강정비사업》을 구실로 《로인복지관련예산》을 12억US$나 줄이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

는 응당 주게 된 1 046만US$의 《로인장기료양보험료》을 지급하지 않아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시민단체는 《갈수록 저질화되고있는 로인무시, 로인학대의 풍향속에서 실용정부의 로인대책은 오리무중이 되고말았다. 기초년금제도입, 의료안전망기금설치 등의 공약은 어느 하나도 리행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로인공약을 뒤집어엎고 남조선을 로인천시의 기막힌 세상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리명박은 기필고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망하고말것이다.

불타죽어간 룡산주민들

2009년 1월 20일 서울의 룡산에서는 경찰의 야수적인 살인만행으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던 주민들이 무참히 희생되는 경악할 사태가 빚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남조선당국이 재개발을 운운하며 아무런 이주대책도 없이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시킨것으로 시작되였다. 추운 겨울에 무작정 삶의 보금자리를 강탈하려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격분한 철거민 50여명은 5층짜리 건물옥상을 점거하고 철야롱성투쟁

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실용정부》가 재개발을 광고하며 마치도 큰 덕이나 볼것처럼 떠들었지만 정작 쫓겨나가게 된 철거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생존대책도 없다고 하면서 해당한 대책을 세울것을 주장하여나섰다.

하지만 《실용정부》패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에 대해 떠들어대며 철거민들의 롱성투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라는 살인명령을 내리였다.

명령에 따라 폭압무력우두머리들은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에 1 600여명 경찰은 물론 테로방지에만 동원된다는 《특공대》까지 내몰아 광란적인 진압작전을 개시하였다. 좁은 건물옥상에 뛰여든 특공대와 경찰들은 무자비한 폭압에 날뛰였으며 치렬한 공방전속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았다. 경찰의 강제탄압을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이 진압중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폭력배들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계속 쏘아대면서 더욱 광기를 부리였다.

결과 철거민 5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참사가 빚어지게 되였다.

룡산살인참극은 리명박의 《뉴타운》공약에 의해 빚어진 인위적인 살인사건이다.

리명박은 서울시장을 해먹던 시절 시민들의 환심을 사

기 위해 오래된 거리들과 건물들을 해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경영, 상업, 봉사 및 주택거리들을 건설한다는 《뉴타운정책》이라는것을 내놓았으며 《대통령선거》때에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명목하에 이를 계속 장려할것이라고 공약해나섰다.

하지만 이것은 인민을 기만우롱하여 부동산재벌들과 부자들의 배만을 불리워주기 위한 일대 사기공약이였다.

《뉴타운정책》에 따라 서울시 룡산구에서도 2009년 5만여평의 부지에 새 건물들이 들어설것이 예견되였는데 이를 위해 그곳에서 살고있던 주민들에게 철거가 강요되였다.

당시 그곳에는 입주주민들과 함께 건물을 임대하여 상업활동을 벌리던 주민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것을 기대하고있었다.

하지만 리명박의 《뉴타운공약》을 폭리의 좋은 기회로 본 건설업주는 그들에게 필요한 생계비와 이주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얼려넘겨 강제철거를 단행하고는 해가 바뀌도록 시치미를 떼고있었다.

날새들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철거민들은 약속한 보상금을 하루빨리 지불하고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친서민정책》을 떠들던 리명박이라면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였다.

하지만 리명박패당은 건설업주의 편만 들면서 철거민들의 요구와 투쟁을 불법과 과격행동으로 몰아갔으며 나중에는 야만적인 탄압을 가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던것이다.

룡산살인참극의 전후는 바로 이렇게 된것이였다.

하지만 리명박패당은 사건이 벌어지자 《정부발표문》이라는것을 통해 사과가 아니라 《불법점거》의 《위법성》을 떠들며 철거민들을 《범죄자》로 몰아댔으며 나중에는 배후조직이 있다고 고아대면서 《척결》을 부르짖었다. 또한 공안당국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서 시신을 빼앗아 제 마음대로 부검하여 두벌죽음을 강요하는 반인륜적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리명박일당의 파렴치한 진상외곡과 기만적인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희생자들은 근 1년동안이나 차디찬 병원랭동고에 방치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건발생후 355일이 지나서야 각계의 참가밑에 범국민장으로 진행된 장례식도 반《정부》시위투쟁으로 번

질 《우려》가 있다고 고아대며 수천명의 전투경찰을 내몰아 주변을 완전히 봉쇄한 리명박일당의 책동으로 살벌한 폭압분위기속에 치르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룡산살인참극은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을 짓밟는것은 식은 죽 먹기로 여기는 리명박일당의 반인민적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특대형살인만행이였다.

오르기만 하는 물가

2011년 4월 남조선의 한 신문은 리명박집권 3년을 맞으며 국민은 물가대란, 전세대란, 일자리대란, 구제역대란의 4대 민생대란에 신음하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대란공화국》이라고 개탄하였다.

표현그대로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온갖 생활대란으로 막막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남조선경제를 호전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켜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줄것을 기대하였다.

이때 리명박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의 생활을 괴롭히는 요인의 하나인 물가상승을 억제고정시키겠다고 호언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류통구조와 가

격체계의 개혁, 가격급상승과 같은 위협사태시 《정부》 개입 등 제도혁신을 통해 주요생활비를 30% 절약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가정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층이 많아지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앉은 직후인 2008년 3월에는 특별회의를 열고 물가공약리행을 위해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며 이외에도 주요품목들의 물가도 특별관리할것이라고 공포했다. 당시 남조선언론들은 이를 《MB물가》라고 자칭하면서 주민들이 다른 물건값들은 올라도 《MB물가》만은 고정되거나 떨어질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펼쳐졌다.

2011년 3월 3일 남조선신문 《동아일보》 1면에는 이 신문발행력사상 처음으로 색다른 사진 두장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제목은 《치솟는 물가에 쪼그라든 서민 밥상, 5만원 들고 장 봤더니 1년새 이만큼 줄었다》이다.

사진들에는 무우, 시금치, 오이, 배, 사과, 낙지, 마늘, 배추 등 주요식료품들이 올라있는데 왼쪽사진은 2010년 3월 남조선돈 5만원으로 산것들이고 오른쪽사진은 2011년 3월 같은 5만원으로 산 똑같은 종류의 식료품들였다. 그런데 왼쪽사진에 비해 오른쪽사진에는 무우는 1개 반에

서 1개로, 시금치는 세단에서 두단으로, 오이는 5개에서 3개로, 배는 5알에서 3알, 배추는 두포기에서 한포기 등으로 줄어들어있어 1년사이에 같은 품목의 가격이 거의 두배나 올랐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문제는 신문에 실린 식료품들이 모두 리명박이 특별관리를 장담했던 소위 《MB물가》품목이라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MB물가》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은 2011년 3월 8일 《MB물가의 굴욕. 고삐 쥔다더니 3년새 20% 급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른바 <MB물가>지수는 평균 20.4% 상승했다. 52개 품목중 년평균 10%이상 오른 품목은 배추가 114.2% 급등한것을 비롯해 마늘(89.8%), 양파(74.8%), 돼지고기(62.1%), 우유(31.4%)를 비롯해 빵, 사과, 두부, 화장지, 휘발유, 짜장면 등 모두 올랐다.》고 폭로했다.

사실 리명박이 물가안정으로 서민들이 생활비를 절약할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물가는 《실용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만 하였다.

2011년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에서 물가는 1년내내 고공비행을 계속했다.

남조선에서 비싸기로 유명해 비난거리로 되고있던 주민들의 전화통신비도 리명박은 20%를 떨구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더 오른 형편이다. 동시에 국민의 뼈를 깎고 피를 짜낸다고 하여 골세, 혈세로 불리우고있는 세금은 계속 올라 남조선인민들은 년간소득의 30～40%를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뜯기우고있다.

살인적인 물가와 세금의 폭등으로 남조선가정들의 실질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수많은 세대들이 극빈의 막바지에서 겨우 살아가는 한심한 형편에 처하였다.

남조선의 《서울신문》은 2011년 5월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가 4.5% 오른 여파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0.9% 줄면서 두 분기 련속 미누스를 기록했다.》고 썼다.

리명박의 이른바 《물가공약》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불신은 폭발직전에 있다.

남조선의 《래일신문》이 진행한 정례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2%가 물가인상을 《체감하고있다》고 대답했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76.4%였다. 《실용정부》가 물가인상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것이다》라는 응답자도 81. 3%나 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물가폭등과 이로 인한 주민생활의 참을수

없는 고통의 증가는 리명박역도의 물가안정공약의 허황성과 기만성을 그대로 웅변해주고있다.

세계에서 1위 — 자살자

2011년 6월 브라질의 한 신문은 남조선사회에서 하루평균 40건의 자살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고용불안, 개인의 경제적어려움증가,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 및 경제적지원의 급속한 감소 등을 꼽았다.

리명박이 권력을 잡은 2008년에만도 남조선에서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1.5명으로 당시 세계최고기록을 냈으며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340만여명이 매일 매시각 자살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있다고 토로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자살자의 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현재 남조선의 인구비례당 자살률은 매해 13%씩 증가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는 인터네트에 자살싸이트까지 퍼지고있는데 이를 통한 집단자살률도 세계1위라고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죽는 동반자살현상까지 만연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자살사건은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

층에서 다 일어나고있는데 특히 청소년들과 로인들속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09년 자살한 학생은 이틀에 1명인 150여명이나 되였다. 2011년에 들어와서도 남조선전역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로인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인바 지난해에만도 근 1 000여명의 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을 사랑하고 아끼며 값있게 보내는것은 인간의 응당한 본도이고 의무이며 인생의 과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한번밖에 없는 생을 보람있고 후회없이 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

하다면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이 생을 허무한것으로 여기고 서슴없이 버리고있으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리명박에게 그 책임이 있다.

리명박은 무려 100가지나 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인민들의 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날것처럼 요설을 떨었지만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진것은 사회의 파쑈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유린, 도탄에 빠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생활뿐이다.

하기에 《실용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되는 2011년 2월

남조선의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전문가들은 백서와 공동평가문, 론평 등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여 리명박《정권》의 3년을 반서민역주행 3년, 반민주, 반언론역주행 3년, 반평화역주행 3년, 반건전재정역주행 3년으로 규정하면서 리명박이 친재벌, 친기업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령세상인들을 무리로 파산시키고 물가폭등, 집값상승, 청년실업대란,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증가를 초래하여 《민생을 완전히 도탄에 빠뜨렸다. 리명박이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국민절망시대>를 만들었다. 지난 3년의 통치점수를 매긴다면 락제점수밖에 안된다. 절망시대는 사람들을 죽음에로 밀어가고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2011년 7월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도 《왜 자살공화국이 되였나》라는 제목에서 《련일 우울한 자살소식은 너무나 일상적인듯 너무나 익숙하게 전해지고있다. 최고의 자살률을 보여주고있는 <대한민국>은 가히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리도 뭐라 할 말이 없다. 작년 한해 모두 1만 4 000명, 하루에 40명 가까이, 두시간에 세명꼴의 자살자들이 발생하고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살이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의 자살인가. 그에게 목숨을 끊으라고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었던가. 우리 사회가 구성원의 일부를 벼랑끝으로 내몰았고 더이상 출구가 없는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의 방어기재를 더이상 발동시킬수 없어 죽음에 이를수밖에 없었던것은 아닐가.》라고 썼다.

또한 남조선언론들은 《국민들속에서는 살길이 막막하다, 국민노릇 하기도 힘들다. 사람은 물론 소나 돼지도 살기 힘들다. 국민이 전쟁을 치르고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참으로 국민절망시대가 바로 오늘이다.》고 전하고있다.

염세는 비관을 불러오고 비관은 절망을 가져오며 절망은 사람들을 자살에로 내몬다.

남조선이 자살순위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인민들과 한 공약을 서슴없이 기만우롱한 리명박의 반인민적인 정치와 파쑈폭압통치로 빚어진 수치스러운 결과인것이다.

질주하는 친재벌정책과 벌어지는 《량극화》

리명박의 집권공약가운데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철저히 실행되는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친재벌공약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2010년 2월 리명박이 《대선》

에서 제시한 공약의 2년간 리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친재벌, 부자공약은 재빨리 리행된 반면 서민복지공약실행은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때 리명박은 남조선 주요재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로부터 많은 선거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기업규제완화, 세금삭감 등 친재벌공약들을 수두룩이 내놓았다.

권력을 잡은 후에는 친기업환경, 친기업《정권》을 표방하며 재벌들에게 수많은 특혜와 특전을 주었다.

리명박이 2009년 3월 공포한 《출자총액제한제》페지가 그 대표적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재벌들이 군사파쑈독재자들의 비호밑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독점하고 무리한 경영활동을 벌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남조선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이 입는 피해는 막대했다.

그리하여 남조선인민들의 강한 요구로 재벌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개인들이 중요기업들의 주권소유에 대한 투자를 정해진 한도까지만 하게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라는 것이 나오게 되였다.

하지만 리명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해야 한다는 구실밑에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버렸다. 2009년 7월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악하여 산업자본이 소유할수 있는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의결권지분한도(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몫의 한도)를 4%에서 9%로 확대하여 재벌들이 무제한도로 자금을 뽑아쓸수 있게도 만들었다.

《실용정부》는 재벌들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를 주면서도 로동관련법들은 더욱 악랄하게 개정하여 재벌기업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만들었다.

리명박은 《비정규직관련법》을 개악하여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구실로 마구 해고하도록 만들었으며 2010년 10월에는 《국가고용전략 2020》이라는것을 통해 《로동시장유연화정책》을 실시하여 재벌기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로동력을 헐값으로 착취할수 있는 법적공간을 마련해주었다.

결과 막대한 부가 재벌들에게 집중됨으로써 부유층은 갈수록 부자가 되고 서민계층은 극빈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되였다.

남조선에서는 2009년에만 하여도 최고부유층과 최하층의 소득격차는 무려 14.5배이상으로서 1997년의 5.7배에

비해 훨씬 벌어졌으며 같은 기간에 빈곤층은 11%에서 19%로 늘어났다고 한다.

리명박《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빈부차이에 대해 2011년 7월 남조선신문 《국민뉴스》는 《생지옥 대한민국 만든 천벌받을 리명박정권이 심화시켜놓은 량극화는 사상류례가 없다.

가진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가난한 서민대중은 빚만 산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는 결코 헛소리가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종합소득세신고를 기준으로 볼 때 1999년 상위 소득계층 20%의 1인당 평균소득이 5 800만원이던것이 리명박집권 2년차인 2009년에는 55%가 증가한 9 000만원으로 껑충 뛰였다. 이에 비해 하위 소득계층 20%의 서민계층은 오히려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역주행 곤두박질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바에 따르면 10대재벌총수 친인척주식평가금액은 2007년 4월 20조 3 700억원이던것이 올해 무려 2배 반이 넘는 50조 6 860억원으로 늘어났다. 갈구리가 아니라 굴착기로 돈뭉치를 퍼담은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폭로했다.

특히 재벌기업우두머리들의 가족이 1인당 년간 벌어들

인 돈은 약 1 110억원이나 되는데 그중에서도 4개의 최부유재벌기업 4개 가족이 1년동안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무려 1조원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하고있는 기업들에서 일하고있는 비정규직로동자들은 한해에 재벌가족들의 몇백만분의 1밖에 안되는 로임밖에 받지 못하고있다.

2011년 2월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싸이트에는 《수도권계급표》라는 도표가 올라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다.

계급표에는 서울에서 평당 남조선돈 1 000만원에서 3 000만원까지의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부자들이 8개 부류로 나누어 올라있었는데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조선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와 사회량극화를 표를 통해 볼수 있었다.》고 했다면서 《<현대판계급표>는 사회의 부의 량극화현상을 꼬집어 비판하는 계급표가 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그러니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썩어빠진 사회를 과연 누가 신뢰하며 리명박이 《친서민공약》을 실행하리라고 누가 믿겠는가.

짓밟히는 미래들

시장화되고있는 교육

오늘 남조선에서는 당국의 반동적교육정책에 의해 신성한 교육마당이 치부의 수단으로, 생존경쟁의 각축전장으로 변해가 사회 각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리명박은 《대통령선거》때 《창의적교육확대》요, 《맞춤형장학제도》요, 《사교육감축》이요 하면서 근로대중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것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올라서고 짓밟아야 한다는 자본주의시장경쟁원리로 교육을 운영할 때 질을 높이고 그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교육의 시장화를 강제적으로 밀고나갔다.

그 첫단계로 《고교다양화》(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률형사립학교 등 다양한 고등학교를 내오는 제도), 《일제고사》(학생들의 학업성적평가시험제도), 《교원평가제도》(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 《수월성교육》(특정부문의 재능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등 교육부문을 시장화하는 보수정책들을 실현해나갔다.

또한 2008년 4월 《학교자률화》방안이라는것을 내놓고 각급 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을 없애버렸으며 대학교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학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관여와 지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리명박은 교육의 자유화를 떠들던 나머지 보통교육부문의 교과서가격까지 시장화시켰다. 즉 이전에 《정부》가 결정하던 교과서값을 출판업자가 시장가격대로 결정하게 하였던것이다.

이밖에도 리명박은 《영어공교육완성》이요, 《대학입학시험3단계자률화》요 하면서 교육을 시장화하기 위한 반동정책들을 계속 강행해나갔다.

결과 남조선에서는 교육마당이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고 돈만을 쫓는 마당으로 화해가고있으며 학생들은 곧은 량심과 옳바른 성품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으로 육성되고있다.

리명박의 교육의 시장화정책의 강행은 심각한 부정적후

과를 가져오고있다.

무엇보다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립학교들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은 학교설립과 운영주최자에 따라 《국립》(국가가 세운 학교), 《공립》(지방자치단체들이 세운 학교), 사립(개인이나 단체들이 세운 학교)으로 구분되여있다.

남조선당국자의 《교육자률화정책》으로 교육이 시장화되면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외국어전문, 예능전문, 기초과목전문, 특수기능전문 등의 사립고등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있는데 그 수는 매달 수십개에 달한다. 이런 학교들은 《국립》 및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우대 및 특혜조건들을 내걸고있으며 여기에 현혹된 학생들이 쏠리면서 수많은 《국립》 및 《공립》학교들이 페교되고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페교된 초등학교만도 수백개에 달했다고 한다.

교육의 시장화는 다음으로 사교육비의 천문학적증대를 가져와 남조선가정들에 막대한 해를 주고있다.

오래전부터 사교육비는 남조선에서 풀수 없는 난문제로 제기되여왔으며 력대 남조선당국자들도 이 문제로 골

머리를 앓아왔다.

공교육에 대한 력대 당국의 무관심으로 남조선에서의 공교육은 질과 수준이 낮았으며 여기에 불만을 느낀 주민들의 심리를 리용하여 방과후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원들이 수많이 생겨났다.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사립학원들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워주는 과목들에 대한 복습, 예습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기능과 기술, 전문지식들, 지어는 대학입학시험만을 전적으로 련습시키는 학원들까지 나타나게 되였다.

이러한 사립학원수는 남조선적으로 수만개에 달한다.

결과 남조선에서는 사립학원을 다녀야 대학을 비롯한 상급학교에도 진학하고 좋은 직업도 얻을수 있다는 관념이 사회에 일반화되고있으며 너도나도 자식들을 탁아소, 유치원때부터 학원에 보내는것이 풍조로 되고있다.

문제는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것이다. 이는 돈이 없는 대다수 근로대중에게 커다란 가정적, 심리적부담으로 되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육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주민가정들은 천정부지로 뛰여오르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을 꾸준히 요구하여나섰다.

리명박도 《대선》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

다고 공약해나섰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되였다. 교육의 시장화로 오히려 사교육비는 폭등한것이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2011년 2월 《공교육 두배, 사교육비 절반공약도 락제점을 받았다. 리대통령취임후 3년동안 년평균 사교육비는 21조 1 357억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20조 400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영어공교육을 확립하겠다면서 각종 대책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영어사교육비는 월평균 1인당 2007년 6만 8 000원에서 2010년 8만원으로 뛰였다.》고 폭로했다.

남조선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도 몰아오고있다.

이는 가정들이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비교대조를 통해 알수 있는바 2011년 5월 남조선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유층가정의 사교육비는 평민가정의 5배를 넘는다고 한다.

결국 돈으로 모든것이 움직이는 남조선에서 돈있고 권세있는 부유특권층의 자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된다는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실용정부》의 반동적교육정책강행을 반대하여 떨쳐나서고있다.

리명박의 집권전반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률이 겨우 5.4%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이 분노와 규탄을 잘 보여주고있다.

리명박의 반동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인민대중의 불만과 반대는 2010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분출하였는데 이때 서울과 경기도 등 6개 지역에서 진보적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였다. 남조선인구의 45%, 전체 초, 중, 고등학교수의 52%, 학생수의 57%를 차지하는 지역의 교육감들이 현 당국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당선되였다는것은 리명박의 교육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된다.

교육을 시장화하고 아이들을 생존경쟁과 개인리기의 그릇된 길로 내모는 리명박의 반동적교육공약은 당장 페기되여야 할것이다.

사라져버린 《반값등록금》

남조선에서는 2011년 5월초부터 반값등록금을 위한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와 집회, 초불투쟁이 련이어 벌어져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이들은 리명박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대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것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실현될 때까

지 각이한 형식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것이라고 다짐하고있다.

등록금문제가 오늘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관심사로 된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등록금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입학과 새 학기를 비롯한 계기들마다 학생명단에 자기 이름을 등록하기 위하여 내는 돈이다.

남조선대학들의 재정은 《정부》보조금외에 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대학자체수익금으로 이루어져있으나 사립대학들은 재정수입의 3분의 2를 등록금에 의존하고있다고 한다.

결과 남조선의 대다수 대학들에서는 해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는것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하고있는데 등록금액수가 너무 엄청나 일반대중에게 커다란 부담거리로 되고있다.

리명박《정권》이 등장하면서 등록금은 더욱 폭발적으로 뛰여오르고있다.

남조선의 교육개발원의 《201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최고등록금은 2000년 654만원에서 2010년 1 347만원으로 2배, 국공립대학은 같은 기간 495만원에서 1 620만원으로 3. 27배로 늘었다.

사정이 이렇다나니 남조선대학생들은 부모들의 고생하며 번 임금을 고스란히 다 밀어넣고 본인이 과외로동까지 하여도 등록금을 충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각종 명목으로 바치는 돈까지 합치면 대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들씌워지는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

지금 세계적으로 남조선의 대학등록금은 제일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한다.

2012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7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빚을 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84.4%가 그 리유가 등록금때문이라고 한 사실은 남조선에서 등록금이 얼마나 살인적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대학생들은 《등록금은 부자들만이 낼수 있다.》, 《등록금은 테로이다.》, 《등록금에 치워 허리 부러진다.》라는 아우성이 연방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에서 등록금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게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다고 한다.

등록금문제가 악화된 책임은 다름아닌 리명박에게 있다.

리명박은 《대선》시기 집권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반값등록금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진실성》을 씌우기 위해 《등록금절반위원회》라는것까지 내

왔으며 수많은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반값등록금공약》을 요란히 선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후에는 반값등록금공약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등록금폭등사태를 조장하고 부추겼다.

《실용》을 약국의 감초처럼 써먹는 리명박은 교육의 실용화를 떠들며 《대학민영화》와 《대학자률화》라는것을 내놓고 대학측에 등록금과 수업료를 비롯한 교육비용을 자체로 설정할 권한을 주었다. 그러자 대학들마다에서는 《재정부족》을 구실로 학생들의 사정이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매해 7~8%씩 올리고 수업료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교육비들도 마구 끌어올리였으며 여기에 항의하는 학생들과 학부형들, 사회 각계의 요구에는 당국의 《대학자률화정책》을 방패로 내들었다.

천정부지로 뛰여오르고있는 등록금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등록금마련을 위한 과외로동에 내몰리고있으며 부모들이 자식들의 등록금을 위해 집과 가산까지 팔아버리고 한지에 나앉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로동을 하는 대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38.2%에 달하고 등록금을 물지 못해 휴학

하는 대학생은 26.9%, 등록금때문에 빚을 지고있는 대학생은 50.9%에 달한다고 한다.

엄중한것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꽃다운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이다.

괴뢰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등록금때문에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은 대학생들의 수가 2008년과 2009년에 도합 580여명에 달하였다.

2011년에만도 2월에 남조선강원도 강릉에서 한 대학생이 등록금때문에 빚을 진 문서를 유서대신 남기고 자살한것을 비롯하여 죽음을 택한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있다.

엄청난 등록금때문에 애젊은 청년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희망을 꺾고 목숨까지 끊는 비극적현실은 리명박의 《반값등록금》공약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공약을 실현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경악된 분노에 리명박은 후안무치하게도 《국민과의 대화》라는데서 《나자신은 반값 등록금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말해 남조선인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우뢰가 울면 비가 오기마련이다.

《실용정부》일당의 철면피한 망발과 반값등록금공약실현회피에 격분한 남조선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반값등록

금실현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투쟁에는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10대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 30, 40대의 직장인들, 가정부인들과 예술인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다 참가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날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반값등록금공약 실현을 요구하는 초불시위와 집회들은 리명박이 떠들어온 공약의 기만성, 허위성과 함께 《실용정부》의 반인민적정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공념불이 된 녀성공약

지상공문 — 보육공약

아이를 낳아 훌륭하게 키워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 것은 모든 녀성들의 신성한 권리이고 누려야 할 참다운 행복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녀성들스스로가 포기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녀성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 고질적인 사회적, 경제적불평등에 시달리는 한편 어린이키우기에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막대한 돈이 들

기때문이다.

2007년 《대선》에서 녀성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리명박은 임신, 해산, 보육, 입학에 들어가는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를 《정부》가 책임지며 《일과 가정의 량립지원》, 《육아휴직제도개선》, 《맞춤형보육시설구축》 등으로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걱정을 없애버리고 녀성들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리명박이 요란스레 내든 보육공약은 지상공문에 불과했다.

2009년 3월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남조선사회에 해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그로 하여 남조선의 출생률이 세계최저수준이 되였다고 하면서 지금처럼 낮은 수준의 출생률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 가서 남조선인구는 현재의 3분의 1로 감소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출생률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녀성들이 고용불안, 양육비부담문제 등으로 해산을 포기하고있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남조선의 한 녀성운동단체가 해고된 녀성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해고된 원인은 결혼과 해산 그리고 어린이보육조건때문이라고 대답한것

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남조선에서는 녀성근로자들이 산전산후휴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으며 임신을 하면 직업을 내놓아야 한다는 로골적인 압력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특히 비정규직녀성로동자들의 경우 해산은 곧 해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어 기업주들은 녀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언제 아이를 낳겠는가, 그 날자를 미리 알려달라, 임신하면 직장에서 나가겠다는 계약서를 미리 제출하라는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있다고 한다. 실지 2009년 1월에만 하여도 임신, 해산 등의 원인으로 일자리를 잃은 녀성들은 8만 4 000명이나 된다.

그뿐이 아니다. 해고를 당하지 않는 녀성들도 심한 차별을 당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많은 기업들이 로동력손실을 막는다고 하면서 녀성근로자들에게 순번제로 돌아가며 아이를 낳게 하고 지어 산후휴가를 받은 녀성에게는 휴가를 받지 않은 녀성에 비해 26%정도 더 낮은 임금을 주고있다. 또한 자녀 한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수십만US$에 달하는 양육비와 교육비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녀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고있다.

서울에만도 양육비와 교육비때문에 25~34살의 젊은 녀성의 50%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한 녀성의 경우 20%가 아이를 낳지 않고있다고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녀성들의 보육실태는 리명박의 보육공약이라는것이 권력을 쥐기 위해 만들어낸 사기공약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허울만 남은 《녀성우대정책》

《<한국>은 녀성차별의 세계적교실》, 《<한국>의 녀성지위 세계 하위권》, 《왜 녀성 먼저 해고인가》

이것은 남조선녀성로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소개한 남조선신문기사들의 제목들이다.

이 기사제목들만 보아도 차별과 멸시, 눈물과 수난속에 몸부림치는 남조선녀성들의 참상을 알수 있다.

원래 리명박은 《대선》때 《녀성보호정책추진》, 《성매매근절》, 《량성평등문화 확산》 등 녀성들을 위한다는 9개나 되는 녀성우대공약을 내들었으며 집권후에는 《선진국수준의 량성평등실현》, 《공공기관 녀성임원할당제 실시》, 《녀성장관, 차관 30%이상 임명》, 《녀성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50만개 창출》이니 하면서 녀성공약실

현을 위해 무엇인가 할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리명박집권 4년간 남조선녀성들에게 차례진것은 정치적무권리와 사회적불평등의 가일층의 심화뿐이였다.

리명박은 집권하자마자 먼저 녀성가족보건복지부를 아예 없애버리려 하였다. 이것이 사회 각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할수없이 녀성부로 축소하여 남겼지만 녀성관련예산은 2007년보다 무려 24분의 1로 대폭 감축하였다. 또한 남녀평등과 녀성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내오기로 하였던 약속을 줴버리고 녀성운동이 좌파로 나간다고 하면서 녀성운동관련법리행문제도 외면하였으며 녀성단체들이 반대하는 보수인물을 녀성부 장관으로 내리먹이였다.

리명박의 집권후 남조선녀성들의 사회적진출도 크게 제약받고있다.

현재 남조선행정부의 장, 차관중 녀성비률은 6.37%, 중앙부처의 녀성고위공무원비률은 2.8%, 광역단체장의 녀성비률은 0%, 기초단체장 녀성비률은 2.6%밖에 안되며 괴뢰국회와 지방광역의회에서 녀성의원비률도 각각 13.7%, 14.8%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체들의 녀성임원비률은 겨우 2%에 불과하다.

녀성들의 경제적처지도 더욱 악화되고있다.

이전시기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한 녀성들이 적지 않았으

나 리명박이 집권한 이후에는 실업당하는 사람들의 95%가 녀성이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줄어든 녀성일자리수는 남성일자리수의 12배에 달한다.

2010년 11월 직업을 가진 녀성수는 991만 4 000명으로서 녀성취업률이 42%로 되여있으나 그의 3분의 2가 비정규직로동자이며 70%정도가 판매 및 봉사업, 농림, 어업 등 로동조건이 어려운 분야에서 종사하고있었다.

남조선의 한 야당《국회》의원은 2011년 3월 8일 리명박《정권》 3년동안 녀성정책은 날로 후퇴를 거듭하고있다면서 리명박은 《대선》공약으로 좋은 녀성일자리 150만개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2009년에만도 오히려 10만 3 000개가 감소한 대신 녀성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녀성은 30만명이나 된다고 폭로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녀성근로자들은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자들보다 34%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있다.

리명박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남조선녀성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긴채 인간최하층의 굴욕적인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2011년 유엔개발계획은 세계의 138개 나라를 대상으로 성불평등지수를 조사발표하였는데 여기서도 남조선은 마지막에서 20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현재 남조선에서 빈곤녀성비률은 전체 녀성의 60%로서 남성보다 2배나 많으며 결혼녀성 10명중 2명이 경제적어려움으로 리혼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매춘의 길에 들어선 녀성은 125만명을 기록하고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녀성들도 전체 자살자의 35.5%로서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2010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남조선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자식의 치료비로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것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46살 녀성이 아들과 함께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2010년 1월에는 경상남도 량산시에 사는 한 녀성은 6 000만원의 빚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딸을 모두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

이런 가슴아픈 비극적사건들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녀성들은 리명박패당의 녀성공약의 기만성을 깨닫고 반동적인 녀성차별정책을 반대하고 녀성들의 한심한 사회적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의 녀성단체들은 《리명박정부에서 녀성이 보이지 않는다》, 《녀성로동자 로동기본권 보장하라》는 구호밑에 각종 련대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까지 버림받은 현 집권자가 청와대에서 쫓겨날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공포로 날을 보내는 녀성들

남조선당국의 반인권적인 녀성정책으로 하여 정치적권리를 무시당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남조선녀성들은 끔찍한 성폭력범죄에 의해서도 참을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공포의 날과 달들을 보내고있다.

리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남조선에서는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는 녀성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더욱 성행하고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2010년초 남조선 부산에서는 한 범죄자가 녀중학생을 릉욕한 끝에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당시 살인범은 바로 경찰의 코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다고 한다. 13살 난 녀학생을 강간한 후 살해한 김길태사건과 중학생 3명이 초등학교 녀학생을 7차례나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 나어린 녀학생을 성폭행하여 페인

으로 만든 김수철사건 등 경악을 금할수 없는 성강력범죄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2009년 범죄백서에 의하더라도 매일 40여건의 성폭행범죄사건이 발생하고있는데 이것은 35분만에 1건씩 일어나고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에서의 성범죄건수는 이전에 비해 2배이상이나 껑충 뛰여올라 세계적으로 강간건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미국의 뉴욕을 훨씬 릉가할 정도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CBS방송이 《이제 전자발진기(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손이나 발에 착용하는 전자기구)는 성폭행예방의 필수품이 됐고 엄마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등하교길을 감시하고있다.》고 개탄했겠는가.

남조선에는 기업들에서 일하는 녀성들도 《합법》적인 성범죄피해자로 되고있는데 현재 남조선녀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상급에게 성회롱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에 시달리고있다고 한다.

녀성들을 회유, 기만, 유괴하여 강제로 매춘행위에 내모는 범죄도 성행하고있다.

범죄자들은 남조선녀성들을 랍치, 유인, 기만의 방법으로 미국, 일본 등에 팔아먹는데 그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녀성인신매매실태가 얼마나 험악했으면 미국까지도 2011년 7월 남조선을 강제매춘공급지역으로 지정했다.

초보적인 인격과 존엄마저도 존중, 보호받지 못하는 남조선녀성들의 처지는 남조선이 최악의 녀성천시사회, 공포의 녀성범죄지대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하고있으며 리명박의 녀성공약의 기만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대통령》이 앞장서다

남조선에서의 녀성천시, 녀성인격모독의 풍조가 만연되고있는것은 리명박자체가 천박한 녀성관을 지니고 녀성들을 차별하고 모욕하는데 앞장서고있는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

리명박은 이미전부터 녀성들을 천시하고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망탕 하여 녀성대중은 물론 사회여론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왔다.

한두가지 실례로 2007년 8월 청주에서 벌어진 《대선후보 6차 합동연설회》전에 충청북도 지사라는자가 《관기》발언을 하자 《어제 온게(녀자) 지사가 보낸것 아니였냐》라며 녀성을 기생으로 모독한 사실, 8월 28일 남조선언론사 편집국장들에게 《마싸지걸(안마를 해주며 성을 파는

녀성)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녀자를 고른다. 왜냐면 얼굴이 예쁜 녀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골랐으니까), 그러나 얼굴이 덜 예쁜 녀자는 써비스(봉사)도 좋고》라는 유치한 발언을 한 사실, 또 불구자들은 태아를 락태해도 된다고 망발한 사실 등을 비롯해 리명박이 녀성들을 모독한 사실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리명박의 녀성모독망발들에 대해 남조선야당들과 녀성단체들은 《겪어온 인생지혜를 가르쳤다.》, 《과거 성매매업소 건물소유주의 발언답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렇게 되자 리명박은 사죄할 대신 《45년전에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 《롱담으로 한 소리》, 《나의 경험담이 아니니 문제삼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발뺌질을 하다가 《45년전 리명박은 대학 2학년생이였다. 결국 대학시절 퇴패업소, 기생집에 다닌 경험을 이야기한다는것인가》라는 더 큰 반발과 비난에 부딪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꼭뒤로 부은 물이 발꿈치까지 흐른다고 리명박이 이 모양이니 그 아래것들도 녀성들을 앞다투어 천시, 모독하는데서 상전한테 뒤지지 않고있다.

리명박의 측근이라는자는 2010년 7월 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남녀대학생 20여명에 조언을 한답시며 《못 생긴애 둘에 예쁜애 하나로 이루어진 구성이 최고이다. 그래

야 시선을 끌수 있다.》고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했는가 하면 장래직업으로 방송원을 희망한다는 한 녀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방송원)를 할수 있겠는냐.》고 하여 해당 녀학생을 터무니없이 모욕하였다. 또한 청와대에 가본적이 있다는 한 녀학생에게는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옆에 누가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왔을것》이라고 하여 여론을 경악케 하였다.

리명박의 녀성관이 얼마나 저질적이였으면 아래것들이 그의 이름까지 꺼들며 녀성들을 모독하는 나발들을 밥먹듯 하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2010년 12월에는 《한나라당》(당시)대표였던 안상수가 3명의 녀기자들과 식사를 하다 느닷없이 《다들 요즘은 전신성형을 하니 얼굴구분을 못하겠다.》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룸(란잡한 행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칸막이로 된 식당)에 가면 자연산만 찾는다고 하더라.》며 녀성들을 성노리개로 모독하는 발언을 망탕 해대였다. 2010년에는 청와대의 행정관 2명이 산하기관으로부터 뢰물과 식사대접까지 받고도 모자라 섬겨바치는 녀성들까지 끼고 자다가 발각되여 망신을 당하였다.

녀성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내세우고 아껴주는것이 인

류사회의 보편적인 도덕이고 례의이며 사회륜리이다.

그런데 리명박은 녀성들을 존중하고 내세우겠다고 《약속》하고는 녀성들을 성의 노리개, 아이낳는 도구로만 여기고 앞장에 서서 모독, 중상, 천시하는 망발들을 마구 해대고있으니 이는 그의 인간됨이 얼마나 저질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도적맞힌》 지역공약

할수없이 시작된 《세종시》

2010년 남조선은 리명박의 오만과 독선이 낳은 세종시 수정놀음으로 인한 정치적혼란과 갈등으로 1년내내 홍역을 앓았다.

세종시란 로무현《정권》시기 내들었던 《주요지방발전계획》의 하나이다.

내용은 2030년까지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지대에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들중의 일부 부, 처들을 옮겨 50만명이 살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것이다.

이 계획은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였고 2006년 12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시》로 한다는것이 선포되였으며 2007년 7월에 시작되여 2009년 11월까지 공정계획의 24%정도가 진척된 상태였다.

리명박은 《대통령선거》에서 충청도지역 주민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자기가 집권하면 《세종시건설》을 그대로 추진시킬것이라고 공약했었다.

선거전 12회, 집권후 4회나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발언으로 《원안대로 추진》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당시 《한나라당》것들 역시 무려 20여차례나 《세종시원안이 당론》이라고 떠들며 《한치 드팀도 없이 실행할것》이라고 광고했다.

그런데 2009년말부터 《한나라당》(당시)이 갑자기 무슨 효률성을 구실로 행정기관들을 옮기는것을 반대하면서 법안수정을 주장하고 《국무총리》 정운찬이 그것을 공론화하면서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였다.

리명박은 《한나라당》(당시)이 세종시수정을 들고나오자 2010년 1월 세종시를 원래 계획된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론난에 더욱 불을 지펴놓았다.

사실 세종시수정놀음은 리명박의 조종에 의하여 벌어진것이다.

리명박은 세종시가 건설되면 결국은 로무현의 《업적》으로 되며 더우기는 《세종시건설》을 그대로 추진하는 경우 《4대강정비사업》을 비롯한 자기의 《치적》쌓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할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자 수하졸개들을 내몰아 이런 놀음을 꾸며낸것이였다.

리명박의 《세종시건설》계획수정흉심이 드러나자 남조선 각계는 강력히 반발하여나섰다.

야당들은 《세종시건설법안》의 수정을 견결히 반대하고 원안고수를 주장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켰다.

특히 충청도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선거》때 지역민심을 낚기 위해 세종시건설을 밀겠다고 《공약》하였던 집권세력이 지금에 와서 《수정》이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사실상 무효화하려고 하고있다고 격분을 토로하면서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리였다.

하지만 리명박은 야당과 사회 각계의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1일 《국무총리》를 내세워 《세종시건설》계획수정안을 발표하게 하였다.

수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종래의 《세종시건설》계획원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을 끌어들

여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원래 계획하였던 2030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것이였다.

리명박은 《세종시건설》계획수정안대로 진행하면 원안에 비해 10배의 경제적리익을 얻고 지역발전효과도 2.8～3배나 높아진다고 떠들었다.

《세종시건설》계획수정안이라는것이 나오자 남조선내부는 벌둥지를 쑤셔놓은것처럼 법석 끓었다.

도처에서 당국자와 《한나라당》에 대한 화형식이 벌어지고 충청남도를 행각중이던 《국무총리》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닭알세례를 받았다.

충청남도에서는 《행정도시사수 500만충청권총궐기대회》가 열리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정권불복종운동》이 선포되였으며 단식투쟁, 삭발투쟁과 같은 반리명박, 반《정부》투쟁이 련이어 벌어졌다.

《세종시건설》계획수정으로 여당내부에서도 집안싸움을 벌리였다.

《세종시건설》공약이 뒤집힌 후 여당의 전통적지반이라고 하는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는 리명박에 대한 지지률이 거의 20%나 떨어졌다.

사실 지난 시기 대구, 경상북도지역은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불리였지만 국제통화기금의 신탁통치후 10여년간

심화되는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심히 침체되였다. 이로부터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교육중심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지구》 등을 건설하는것으로 지역경제를 추겨세울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세종시건설》수정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다나니 이 지역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으로 될 형편에 처하게 되였던것이다.

2010년 6월 29일 《실용정부》패들은 《세종시건설수정안》이 《국회분과위원회》에서 압도적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였으나 《백년대계사업》이므로 전체 《국회》의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우기면서 수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국회》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도 참가한 여야당소속 《국회》의원 총 275명중 《한나라당》내 친리명박계인물 105명만 찬성하고 그외 164명이 반대함으로써 《세종시건설수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였다.

리명박은 《결단》이요, 《고뇌》요 하면서 주요정책으로 내들었던 《세종시건설수정안》의 《국회》부결로 커다란 정치적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할수없이 《세종시건설》을 원안대로 진척시킬수밖에 없었다.

민심의 배격에 밀려 할수없이 시작한 《세종시건설》.

이는 인민들앞에서 하였던 약속도 서슴없이 배반하는

비렬한 리명박의 사기공약때문에 남조선에서 고질적문제거리로 되고있는 지방들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더욱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출판물들은 이렇게 전하고있다.

《보통사람들도 한입으로 두말하면 신뢰를 잃는다. 주변에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한입으로 두말하는데서야 어찌 신뢰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리명박은 공공연하게 말바꾸기를 되풀이해왔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10여차례에 걸쳐 원안대로 추진을 약속했으나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어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국민들을 극한의 지역갈등에로 몰아넣었다.

이런 사람을 믿고 표를 준것이 부끄러울뿐이다.》

백지화된 《동남권신공항공약》

리명박이 《대통령선거》때 약속한 지방발전공약의 기만성과 허구성은 세종시뿐아니라 《동남권신공항공약》을 완전백지화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있는데서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신공항이란 경상도지역에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

하는 문제이다.

남조선에는 비교적 큰 규모의 국제비행장이라고 있는것이 인천에 있는 비행장 하나뿐이다. 그러다나니 그에 따른 하부시설들과 공공봉사시설들, 기업들이 그 주변에 집중되고 따라서 인구도 늘어나 서울, 인천지역에서만 남조선주민의 근 4분의 1이 살게 되였으며 이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후과를 가져오고있었다.

또한 이 지역에 비해 다른 지역경제 및 사회하부구조, 주민들의 생활발전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동남부지역에 새로운 비행장을 만드는것은 1990년대부터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도지역 주민들이 희망해온것이였다. 결과 이 문제는 2006년에 《대통령》이였던 로무현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론의되기 시작하였다.

리명박은 《대통령후보》시절이던 2007년 8월 령남지역에 찾아가 새 비행장을 건설할것을 공약하면서 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먼저 실행해야 할 《30대선도계획》이라고까지 선전했었다. 《대통령》이 되여서는 2009년 10월까지도 새로운 비행장은 철저히 경상도지역에 건설할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약속했으며 국토연구원에 건설타당성을 조사하게 하고 2009년 7월에는 립지평가위원

회라는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자 경상도지역에서는 비행장건설이 결정된것으로 규정짓고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서둘렀다.

그러나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동남권신공항건설》공약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삐거덕거리기 시작하였다.

보수당국은 새로운 비행장을 경상도지역의 어디에 건설하겠는가는 2009년 9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하였지만 각종 정치일정과 지역간 모순을 구실로 질질 끌기만 하였다. 한편 일부 인물들을 내세워 《경제성이 없다.》, 《그대로 밀면 령남지역도 분렬될수 있다.》면서 공약실현의 불가능성을 슬며시 류포시켰다.

여기에 불안과 불만을 느낀 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당국들까지도 리명박이 공약리행을 위해 비행장건설지역을 하루빨리 지정하라고 요구해나섰다.

결국 2011년 3월 30일 오후 5시 괴뢰국무총리가 《동남권신공항건설》을 위한 《립지선정발표 기자회견》이라는것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약속했던 동남권신공항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수 없게 된데 대해 령남권지역주민은 물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한마디를 하고는 도망쳐버리고말았다.

4월 1일 리명박은 《신공항백지화 특별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뻔뻔스럽게도 《공약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수 없다. 신공항을 공약한것은 사실이다.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것이다.》면서 자기의 배신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래도 리명박이 설마 자기 입으로 한 공약을 뒤집겠는가, 지난 《대통령선거》때 저에게 지지표를 준 령남지역을 모르는척 하겠는가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이 지역 주민들은 철면피한 그의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나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고말았다.

《실용정부》패당은 신공항립지평가결과 이 지역의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환경파괴와 건설비가 많이 드는 등 경제성이 없기때문에 신공항건설공약이 실현불가능하다고 변명하였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남조선의 《국제신문》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항공정책연구소가 각각 분석한데 의하면 가덕도 1.2, 밀양 1.05로 비용 대 리익이 1이상으로 되기때문에 모두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남조선언론들은 리명박이 《동남권신공항건설공약》을 집어치운것은 새로운 비행장을 자기 지역에 건설하기 위한 론쟁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지역 대 부산지역간의 세력대결로 번져지면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하는 경

우 떨어진쪽의 반발을 아무리 해도 잠재울수 없으며 결국 이로 하여 저들의 지지기반을 잃을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또한 새 비행장을 건설하는 경우 막대한 자금이 들어 리명박이 집권《업적》을 남기기 위해 막무가내로 강행하는 《4대강사업》을 제대로 끝낼수 없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리명박은 자기의 얄은 수가 통하리라 믿었지만 그것은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진 격이 되였다.

경상도지역에서는 집권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당국자에 대한 배신감이 고조된 가운데 2011년 1월까지만 하여도 평균 65%정도에 달하였던 지지률이 《신공항건설공약》백지화이후 48%로 뚝 떨어졌으며 현재는 30%계선까지 내리굴렀다.

분노한 경상도지역 주민들은 하나같이 리명박은 수도권 《대통령》이며 지방을 죽이는 《대통령》이라고 말하면서 《세종시로 충청도민을 우롱했고 강원도 원주의 첨단복합단지공약을 내팽개쳐 강원도민을, 이제는 동남권신공항으로 령남권주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주고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리명박의 새로운 별명은 《백지왕》이라고 하면서 《동남권신공항백지화는 리명박정부사기공약의 말로》라고 비난했다.

정치는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옳바로 실행하는데 정치의 본도가 있고 정치가의 참모습도 있다.

대중의 신의와 기대를 차던지고 민중을 속이고 배반하는것을 식은 죽 먹듯 하는 리명박이야말로 민심을 기만하고 인민을 등진 위정자의 표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역갈등을 부추긴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건설공약》의 백지화로 당국에 대한 경상도지역 주민들의 감정이 험악해진데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공약리행을 두고 남조선의 각 지역들사이에 반목과 질시의 대결전이 빚어져 남조선당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높아지고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란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첨단과학기업도시를 건설하되 이를 여러 지역에 배치해 띠처럼 련결시킨다는것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한것은 2007년 당시 리명박이 《대통령》후보자격으로 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 특별강연이라는데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분야의 2대 핵심계획》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건설과 《신

에너지(에네르기)기술개발》을 밀고나가겠다고 장담한 때부터이다. 이렇게 되자 그해 11월에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공약과제》의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쎈터를 건설하고 글로벌(국제적)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대선공약집》에 명시하였다. 그 후 리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과학비즈니스벨트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거쳐 2009년 1월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종합계획》으로 정식화되였다. 2009년 2월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2010년말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건설이 본격적인 일정에 오르게 되였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어디에다 건설한다는 정확한 지점이 찍혀지지 않아 각 지역들사이의 분쟁과 갈등의 불씨로 번져졌다.

일이 이렇게 번져지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리명박에게 있다.

리명박이 《과학비즈니스벨트》건설을 공약하면서 이것을 충청남도에 전개한다는것을 공약집에 쪼아박았으며 남조선주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믿고있었다.

그런데 계획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되면서 예

정지를 충청도지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충청도외의 지방과 지역들이 건설대상들을 자기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다 2011년 2월 1일 리명박이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실황방송 에서 《과학벨트공약집에 있었던것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것뿐이며 위원회가 발족해서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될것》이라고 발언하는 한편 4월 1일에는 대구시장, 경상북도 지사와의 면담이라는데서 《동남권신공항공약》백지화대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이 지역에 분산하여 건설해줄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였다. 게다가 여당내부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 오성, 세종시, 대구, 울산, 포항, 부산, 전주, 광주, 천안, 아산, 충주, 원주 등으로 분산건설한다는 구체적인 배치안까지 나돌았다.

이렇게 되자 충청도지역에서는 수십만이 참가한 가운데 《범충청권 시도민궐기대회》가 열리고 보수당국에 대한 규탄과 공약실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리명박의 공약에 《과학비즈니스벨트충청권건설》이 있다는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리명박이 《과학비즈니스벨트》건설을 놓고 지역갈등을

최대로 고조시키면서 교활하게 놀아대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언론들은 리명박이 이 문제에 여론의 눈길을 집중시켜 반역정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각 지역에 분산건설함으로써 《동남권신공항공약》백지화로 환멸을 느낀 령남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사고 또 호남지역 주민들과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추파를 던져 2012년에 진행될 《국회선거》와 《대선》에서 보수패당의 집권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공약》을 둘러싼 남조선지역들사이의 갈등과 모순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의 추악한 권력야심과 정치시정배의 체질을 다시한번 똑똑히 알게 되였다.

부활시킨 패거리정치 《인사공약》

지역, 인간, 학벌, 인척관계로 얽혀진 인물들로 권력의 요직들을 채워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실현에 내몰고 장기집권을 꾀하는것은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며 고칠수 없는 병이기도 하다.

리명박 역시 이 문제에서 두번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자기 족벌, 파벌들을 권력의 요직에 끌어들여 측근정치, 파벌정치를 일삼고있다.

원래 리명박은 《능력위주의 인사검증》, 《족벌정치페지》, 《공기업들에 대한 락하산인사차단》 등을 내세우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악페로 되여온 인사문제를 과감해 고쳐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리명박의 약속은 말로만 떠든 헛공약이 되고있다.

리명박의 인사공약의 기만성을 남조선에서 널리 풍자되고있는 별명들을 통해 보기로 하자.

《고소령정부》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령남지역의 첫글자들을 따붙여진 별명이다.

이 별명은 리명박이 청와대와 내각을 전부 자기와 지역과 학벌, 종교적으로 련결된자들로 꾸린것을 비난하여 생겨난것이다.

2008년초 《대통령》모자를 뒤집어쓴 리명박은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들을 신통히도 거의가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령남지역 등 자기 출신지와 다닌 학교, 믿는 종교의 인물들만 골라 끌어들였다.

이를 본 남조선인민들이 리명박《정부》에 《고소령정부》라는 이름을 붙여 비난조소하는데 대해 남조선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했다.

《실용의 간판밑에 출현한 리명박정권은 첫 인물구성부터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권력지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령남지역 등 자기와 연고가 있는 인물들로만 내각을 구성했기때문이다. 특정인맥중심의 내각구성을 보면서 국민들은 리명박정부가 로골적인 기득권층 및 특권층편향의 정부라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이 정부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정도 희석되고말았다.》

집권말기에 이른 오늘까지도 리명박은 《고소령》인물들을 계속 요직에 박아넣고있어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S라인》, 《만사형통》

《고소령정부》 다음으로 리명박《정권》의 인사공약의 허구성을 풍자폭로한 별칭으로 널리 퍼진것은《 S라인》, 《만사형통》이다.

《S라인》이란 리명박이 서울시장을 하던 시기에 측근으로 불리우던 인물들을 《실용정부》의 요직에 들여앉힌

것을 조롱하여 생긴 말이다. 즉 영어로 서울시장을 가리키는 《S》와 줄, 끈을 의미하는 《Line》을 합친 말로써 《서울시장선》이라는 뜻이다.

리명박은 자기가 서울시장을 할 때 데리고있던 부시장, 보좌관, 국장 등 측근인물들을 청와대와 내각, 정보원과 감사원, 검찰과 경찰의 주요요직들에 선발배치하였으며 이자들은 《실용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앞장에서 실행해나가면서 갖은 못된짓을 다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들을 리명박의 《S라인》인물들로 조소하면서 기만적인 인사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만사가 리명박의 형을 통해야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쓰인 말이다.

리명박이 들어앉은 후 그의 형인 리상득은 막대한 권력을 틀어쥐고 정치는 물론 인사문제까지 손에 쥐고 흔들면서 남조선정계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지어 리상득이 《국무총리》인사문제까지 결정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동생《정부》를 형님권력이 유지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리명박이 이를 부인했지만 진실은 얼마 안 가서 드러났다.

2009년 2월 리명박역도는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실》 실장, 금

융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4명과 청와대와 행정부의 인물들, 정보원과 경찰청을 비롯한 파쑈폭압기구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인사놀음을 벌려놓았는데 대부분이 리상득이 추천한 인물들이였다.

《S라인》, 《만사형통》은 남조선당국의 인사정책공약의 허구성과 교활성에 대한 민심의 저주이다.

회전문인사, 보은인사

리명박은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지난 4년동안 《실용정부》가 파멸직전의 문턱에 이르렀던적이 한두번 아니다. 리명박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파렴치한 공약리행거부책동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때문이였다.

2008년의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반대투쟁과 2009년 룡산철거민들에 대한 야수적학살만행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의 항의투쟁, 세종시수정안과 《동남권신공항공약》백지화로 떨쳐나선 충청도와 경상도지역 주민들의 반《정부》투쟁이다.

그때마다 리명박은 졸개들에게 책임을 들씌워 해임, 철직시키는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군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리명박은 이자들을 슬그머니 다시 권력의 요직들에 들여앉히고있다.

세종시수정안총대를 앞장서 메고나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떨어진 전 《국무총리》 정운찬이 대표적이다. 정운찬은 사건후 전에 일하던 대학교수로 돌아갔으나 리명박은 그 무슨 《동반성장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그를 장관급인 위원장으로 들여앉혔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 리동관, 전 특임장관 리재오 등 리명박이 회전문인사로 다시 끌어들인자들은 부지기수이다.

2011년 7월에는 리명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새로 끌어들였는데 둘다 리명박의 권력람용, 부정부패를 덮어준자들이다. 즉 《보은인사》인것이다.

남조선신문 《한겨레》 7월 16일부는 이에 대해 《민심외면의 극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민심과 동떨어진 리명박의 인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5일 강행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인사는 그중에서도 특출하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이번처럼 인사안에 거세게 반대한적이 없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리명박에게 이런 호소는 소귀에 경읽기였다. 그는 오히려 보란듯이 자기 뜻대로 인사를 강행해버렸다. 오기와 배짱도 이 정도면 국보급수준이다. 측근챙기기, 고소령, 강부자내각, 회전문인사 등 그동안 리대통령의 인

사를 두고 쏟아져나온 비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인사는 이 모든것을 아우르는 결정판이라 할만 하다.

이번 인사로 리명박정부의 핵심사정라인은 모두 대구, 경북, 고려대출신으로 채워졌다. 개각때 그나마 시늉이라도 내던 지역안배니, 출신학교고려니 하는따위도 일절 없었다. 대구, 경북, 고려대가 리명박에게 의미하는것은 두말할나위없이 충성심이다. 대통령의 임기말관리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충성심이 으뜸이라는 생각에 상식이나 체면따위는 내팽개쳐버린것이다.》

그러니 이런자들이 앞으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리명박의 반역정책실현에 더더욱 악랄하게 날뛰리라는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영포회》

2010년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정권》의 권력형부정인사사건인 영포회사건이 터져 커다란 사회적물의가 일어났다.

영포회사건은 《국무총리실》산하 공직륜리지원관실의 리인규라는자가 청와대의 고용로사비서관인 리영호와 작당하여 개인기업가의 뒤조사를 하는 등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행위를 감행하였는데 여기에 영포회(경상북도 영일,포항출신 공직자모임)가 깊숙이 개입되였다는것이 밝혀

지면서 일어났다.

영포회는 리명박일가족속의 고향인 영일, 포항지역출신이거나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들의 사적인 조직으로서 리명박과 그의 형인 리상득이 배후조종자인것으로 하여 《정부내의 권력실세들의 그룹》으로 불리우고있었다.

영포회 성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파견되였다가도 자기 부서로 돌아와서는 의례히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되였는데 남조선언론들은 이것만 보고도 영포회의 막강한 권력을 알수 있다고 하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영포회관계자들은 리명박과 리상득의 묵인, 비호하에 자기들의 출세에 방해로 되는 인물들을 제끼기 위해 도청, 미행, 개인비밀열람 등 비법적인 사찰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또한 서로 비행들을 덮어주고 밀어주면서 괴뢰정부의 요직들을 모조리 독차지하기 위해 날뛰였다.

영포회사건으로 리명박의 인사공약의 기만성은 다시한번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였다.

이외에도 락하산인사, 뒤문인사 등 리명박의 인사공약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별명들과 사건들은 수없이 많다.

하기에 남조선의 야당의 한 인사는 리명박《정권》은

《고소령, 강부자인사로 출발해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로 마무리짓고있다. 장관, 청와대와 공기업에 실패한 인물, 대선캠프인사만 임명했다. 어쩌면 그렇게 실패한 인물들만 골라 뽑았을가 싶을 정도이다.

오죽하면 리명박을 두고 <노벨인사상>감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무능의 조건을 골고루 갖춘 리명박정부가 실패하는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부정부패의 전시장

명함만 내밀어도

조선말에 《흥청거리다》는 말이 있다.

력사에 악정과 폭정의 대명사로 기록된 리조의 10대왕 연산군은 왕자리에 올라앉자 성균관(리조시기 대학)을 폐지하고 기생방으로 만들었으며 민가를 허물고 사냥터를 만드는 등 패륜패덕과 부화방탕을 일삼았다.

이때 전국에서 《흥청》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기생들이 선발되여 궁안으로 들어왔는데 연산군이 이들과 부화한

생활을 하고 진탕망탕 주지육림에 파묻혀 정사를 내버린데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조소가 《흥청거리다》는 말로 후세에 전해진것이다.

력대 남조선집권자들도 혈족, 친척, 측근들을 총동원하여 온갖 부정부패와 감언리설, 사기협잡으로 긁어모은 엄청난 재부로 부화방탕과 패륜패덕으로 흥청거리다 인민의 버림을 받고 망하지 않은자가 없다.

리명박 역시 혈족들과 측근들을 내몰아 부정부패범죄에 앞장서고있다.

2008년 리명박의 처사촌언니의 사기사건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추천받게 해주겠으니 운동자금을 내야 하겠다며 한 사람에게서 30억원을 받았다. 《대통령》처의 사촌언니라는 배경으로 남을 속여먹었던것이다. 2010년에는 리명박의 조카사위라는자가 4세대 이동통신사업에 개입하여 사기와 협잡을 일삼으면서 숱한 돈을 떼먹고 도망쳐 물의를 일으켰다. 2011년에 들어와서는 리명박과 친척지간인 황모라는자가 부패범죄로 조사를 받았다. 이자는 리명박의 손우동서의 막내동생인데 4대강사업을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는 건설업체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자기가 공공기업의 관리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식의 거짓말로도 많은 돈을 받았

는데 2009년 3월부터 이런 속임수로 받은 돈은 수천만원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형의 권력람용사건, 사돈의 비밀자금조성사건, 사위의 주가조작사건 등 리명박일가족속의 부정부패사건을 꼽자면 끝이 없다.

공통적인것은 이들이 하나같이 리명박을 등대고 부정부패행위를 일삼았다는것이다.

원래 리명박자체가 부정부패로 돈을 긁어모으고 그 돈을 뿌려 《대통령》감투까지 뒤집어쓴 부정부패의 왕초이다.

리명박은 현대건설에서 사장으로 출세하는 동안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며 돈을 긁어모았으며 부동산협잡, 주가조작, 회계장부협잡 등의 부정적방법으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마련했다.

그후 《국회》의원, 서울시장의 직권을 악용하여 저지른 권력부패죄행도 수없이 많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때 큰 문제거리로 되였던 BBK사건의 장본인도 리명박이다.

이 사건은 BBK라는 회사의 대표였던 김경준이 190억원이상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것이 드러나 괴뢰검찰에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언론에 의하여 리명박

이 이 회사의 공동대표이며 자금도피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사회 각계층은 사건의 진면모를 밝힐것을 주장하면서 부정부패의 진범인은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나섰다.

하지만 리명박은 김경준과 동업한 회사는 BBK가 아니라 《LK이뱅크》라는 투자회사이며 저 역시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때문에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극우보수세력들을 동원하여 검찰에 압력을 가하게 하였으며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집권한 후에는 이 사건과 련관되여있는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종결선포와 특사, 재판회부포기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부패범죄를 숨겨보려 하였다.

하지만 2011년 남조선잡지 《주간동아》는 금융감독원이 2000년 5월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한 BBK창립문서에 의하면 리명박이 회사의 발기인으로 포함되여있으며 리명박이나 또는 이들이 지명한 리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회사의 결정이 이루어질수 없도록 하였다는것이 문서에 명시되여있었다고 보도했다.

리명박의 부정부패전적이 이렇듯 뛰여나니 일가족속들의 돈 긁어먹는 수법도 닮을수밖에 없는것이다.

친인척비리가 계속 일어나자 리명박은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친인척비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느니, 《누구도 보아주어서는 안된다.》느니 하면서 자기는 청렴결백한듯이 요술을 놀았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2011년 1월 남조선잡지 《시사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청와대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고있다. 리명박은 그동안 친인척련루비리에 대해 여러차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시사저널의 취재결과 경찰이 최근 리대통령의 친인척인 황모의 비리를 은밀히 조사하고있는것으로 확인되였다. …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정권말 권력루수징후로 보고있다. …

리명박은 지난해 7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어떠한 형태의 친인척문제나 권력형비리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은 공념불에 불과했다. 툭하면 터져나오는 친인척비리로 인해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남조선의 현실은 리명박 역시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일가족속들을 동원한 부정부패행위에서 결코 악취를 감출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용정부》는 부패활성화《정부》

탐관오리란 탐관과 오리의 복합명사로서 탐욕에 가득차 있는 벼슬아치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 마음이 더럽혀져있는 아전을 뜻하는 말이다.

봉건시대 과거급제한 《관》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앞잡이로 《리》를 임명하였다.

《관》들은 벼슬길을 얻는데 들이민 돈을 되찾기 위해 《리》들에 의거하였는데 이들은 《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백성뜯어먹기에 못하는 짓이 없었다.

탐관오리의 학정은 봉건시대의 가장 큰 페단이였고 백성들의 첫째가는 증오대상였다.

물은 아래로만 흐른다고 리명박의 권모술수와 부정협잡술을 닮아 지금 남조선에는 숱한 현대판 탐관오리들이 틀고앉아 권력을 등댄 온갖 수법의 부정부패로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빨아먹으면서 재산불구기에 혈안이 되여있다.

원래 리명박은 자기가 집권하면 권력형부정비리를 단호히 척결할수 있게 《특별검사상설화법》을 추진하며 공

직자가 뢰물을 받으면 50배의 벌금을 물리고 특권층들의 고의적인 탈세는 100% 몰수하는 등 엄격한 처벌로 권력계층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리명박의 부패척결공약은 말공약으로 끝나고 있다.

남조선은 청와대로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제의 말단까지, 사법, 검찰, 경찰, 괴뢰군은 물론 민간기업들에까지 사기, 협잡, 뢰물, 위조, 밀매, 매수 등 세기도 힘든 갖가지 수법의 부정부패범죄가 암처럼 퍼져있어 통채로 썩어들어가고있다.

부정부패범죄에는 역시 리명박의 측근들이 앞장서 돌아치고있다.

2010년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의 측근중의 최측근이고 《청렴결백의 상징》이라고 떠들던 방위사업청장 장수만이 군수업체들로부터 수백만US$의 뢰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쫓겨났다.

9월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부실기업체의 주권값을 올리도록 금융감독원에 압력을 가한 대가로 뢰물을 받은것이 드러났으며 10월에는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이 돈을 받은 건설업체에 청와대의 일부 건물보수공사를 맡아하도록 한 사실이 발각되였다. 이들은 현 《정권》초기부터 일해

온자들로서 당국자의 측근으로 일러왔다고 한다.

2011년말과 2012년에 들어와서는 리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한 《공적》으로 하여 이른바 《6인회》로 불리우던 최측근들이 부정부패범죄로 련이어 나가떨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리명박의 친형인 리상득과 《국회의장》을 해먹던 박희태, 《정신적고문》으로 불리우며 날뛰던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특임장관이였던 리재오 등이 본인이나 측근인물들이 여러 기업들과 개인들로부터 수십만US$의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들통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리명박당국의 장관이라는자들도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한심하고 경제적으로 부패한 범죄자들이다.

권력을 탈취한 후 리명박은 몇차례의 《개각》놀음을 벌려놓았는데 그때마다 례외없이 부패의 오물보따리를 지고다니는 너절한 작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였다.

2009년 리명박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세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자기 처와 함께 교수로 있을 때 수년동안에 걸쳐 세금을 《중복공제》하는 방법으로 떼먹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세운자 역시 처의 토지구입과 딸의 주택구입과정에 탈세와 불법을 저질렀다는것이 폭로

되였으며 《대법관》으로 뽑은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것이 드러났다.

특히 통일부 장관이였던 현인택은 남조선의 한 신문이 《일일이 거론하기도 숨찰 정도로 의혹사항이 길다. 통일부 장관후보자가 부정의혹의 종합백화점이라는 야당의 비난이 그냥 나왔을리 없다. 론문중복게재, 편법증여, 처의 국민년금미납, 자녀위장전입의혹은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일부 의혹을 해명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의혹이 나오는 형편이다.》고 비난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한자이다.

현인택은 청문회 당시 54편의 론문을 등록했다고 밝히고는 그후 슬그머니 32편을 삭제하였는데 그것은 이 론문들이 2중으로 등록된것이 드러날가봐 두려워한짓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진행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리명박이 추천한 총리, 장관, 《대법관》 후보들이 8명이나 위장전입, 론문표절, 재산은페, 범죄전과 등 경제적, 도덕적부패로 련이어 떨어졌다는 사실은 이자들이 하나같이 도덕적으로 너절하고 경제적으로 비렬한 범죄자들이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하고있다.

2011년 1월 남조선에서는 일명 《함바게이트》라고 불리우는 대규모부정부패행위가 적발되였다. 경찰과 정계, 지

방자치단체의 리명박측근인물들이 《함바집》(건설현장식당)운영권알선을 전문으로 해온 한 중개업자로부터 10여년동안 막대한 돈과 음주, 골프접대를 받고 각종 개발지역 건설장들의 식당운영권알선을 독점하도록 해준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사건은 2010년 10월 자금횡령죄로 구속기소된 《함바집》운영권알선업자가 검찰조사과정에 자기가 지난 시기 《함바집》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뢰물을 제공한 경찰관계자들과 정치인, 관료인물들을 불어댄것이 발단이 되였는데 공개된것만 해도 청와대 감찰팀장과 치안비서관, 전, 현직 경찰고위인물 50여명, 현직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수십명이다.

이자들이 받은 뢰물은 평균 수천만원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리명박《정권》이 얼마나 썩었는지 부정부패를 적발, 숙청한다는 검찰, 경찰들까지 부패범죄에 앞장서는 판이다.

2010년 4월 MBC방송은 남조선검찰내부의 부정부패행위의 일단을 폭로하는 어느 한 건설업체대표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문건에는 몇년간에 걸쳐 권력을 등대고 대상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음주접대를 받은 부

산지방의 현직 검사장 2명의 이름과 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행위의 내막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이외에도 50여명의 전, 현직검사들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적혀있는데 그들은 돈과 음주접대로도 모자라 성접대까지 수시로 받았다고 한다.

남조선신문 《세계일보》는 2011년 6월 지나간 3년동안 《정부》 45개 기관소속 직원가운데 부정비리가 발각된 인원은 무려 7 754명에 달하였다고 폭로했다.

만연할대로 만연한 부정부패에 남조선인민들은 아예 등을 돌리고있다.

남조선의 한 방송이 《국민들은 리명박정권집권이후 폭죽 터지듯 터져나오는 부정부패비리를 접하면서 망하지 않는게 이상하다고 여길 정도였다. 집권하자마자 터진 대통령처 사촌언니가 련루된 돈공천비리, 구속된 국회의원들의 비리협조, 대통령측근중의 측근이자 청렴결백의 상징으로 자랑이였던 장수만 방사청장의 뢰물수수사건, 스폰서검사사건, 경찰의 강남고급유흥업소 련관비리, 링스헬기정비비리를 비롯한 각종 군납 비리 등 부정부패백화점정권이 따로 없을 지경이였다. … 부정부패비리가 본업일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게 리명박정권하의 부패부정공직사회의 현 주소이다.》고 비난한것은 결코 우연

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고통받은 주민들의 생활개선이 아니라 저들의 부화방탕을 위한 부정부패범죄에 혈안이 되여 날뛴 리명박과 측근들의 행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청계재단》의 정체

2007년 리명박이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하자 많은 남조선사람들이 반신반의하였다.

그것은 당시 남조선돈으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로 알려진 리명박이 과연 진실로 일반대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는가 하는데서 오는 의문이였다.

당시 《대통령선거》경쟁에 나섰던 후보자들도 리명박의 재산문제를 거들면서 공약실현의 허위성을 집요하게 공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리명박은 《집 한채만 두고 모든것을 내놓겠다.》면서 자기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공약하였었다.

그러면 리명박의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였는가.

2009년 7월 리명박은 소유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으로

자선재단을 만들며 명칭은 《청계재단》으로 한다는것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를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한것은 꽤 오래전부터였다.》느니, 《사회가 물질로서만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였으면 하는것이 진실한 소망이다.》느니 하며 능청을 떨었다. 이에 대해 리명박의 측근들은 《이제 대통령은 물질적욕심이 없을것으로 믿는다. 오직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욕심 하나밖에 없을것으로 확신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개인철학이 있었다. 재임중에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것은 세계정치사에 류례없는 일이다.》라고 리명박을 요란히 추어올렸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는 의혹의 눈길을 지금까지도 보내고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무엇보다도 이상한것은 재산기부방식이였다.

리명박은 처음에 사회에 재산을 전부 바치겠다고 하였으나 만들어진것은 개인의 사설재단이였다.

자기 재단에 돈을 내는것은 결코 기부라고 볼수 없다는것이 남조선세간의 일치한 평가이다. 게다가 재단을 운

영한다는 성원들도 모두가 리명박의 측근들로 불리우는자들이다. 재단리사장은 리명박의 대학동창이자 후원회장을 하던자이며 리사들도 출신지와 다닌 학교들이 리명박과 같은 인물들이다. 리명박의 사위도 여기에 들어있다.

리명박이 집 한채만 남기고 전부 내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다는것도 밝혀졌다.

2011년에 있은 고위공직자재산공개에 의하면 리명박의 2010년 재산은 500만US$가 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약속한 집 한채 값을 제외하고도 대단히 많은것으로 된다.

의혹은 이뿐이 아니다. 《청계재단》이 지불하고있는 《장학금》이 실지 수입액보다 적은것도 론난거리로 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청계재단》측은 총 60만US$의 장학금을 지불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재단 총수입 190만 US$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재단규모에 비해 장학금액수가 적다는 사회계의 의문에 재단측은 《재단부동산은 3년간 매도할수 없어서 재단활동에 제약이 있다. 그나마 공익법인이여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아 겨우 유지하고있다.》라고 구실을 대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세금전문가들은 비영리재단(리익을 얻

는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단)의 경우 비영리공공목적에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주민세 등 총수입의 30～35%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재단의 구실을 일축하고있다.

결국 해마다 재단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이 자취를 감추고있는셈이다.

많은 의혹들과 나타난 사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남조선의 공정한 여론은 리명박이 진실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다시말하여 리명박이 재단을 만든것은 기부가 아니라 재산을 보존하여 자식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속임수라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분석이다.

이상한 재산기부방식, 혈족 및 측근에 의한 재단관리인원배치,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것 등은 《청계재단》이라는것이 리명박이 대중의 불신을 무마하고 불리한 사태를 모면하며 부정으로 모은 재산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권모술수로 꾸며낸것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원래 리명박은 이러한 사기행각의 능수이다.

2011년말에 벌어진 《내곡동사저》문제를 놓고 잘 알수 있다.

리명박은 퇴임한 후 자기가 살 집을 짓는다면서 서울의 내곡동에 집터를 잡았다. 그러면서 부지를 아들의 명의로 산다면서 현금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꾸었다는 소문을 내돌렸다.

하지만 남조선언론들의 조사에 의해 실지로는 《공금》으로 집터값을 물었다는것이 폭로되여 제가 살 집의 부지값을 인민들이 낸 세금으로 밀어넣는 리명박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시정배인가 하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국의 공자는 《5악인물론》에서 시치미를 딱 떼고 음흉하게 나쁜짓만 저지르는자, 하는 일이 조금도 공정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공정한체 하는자, 거짓말쟁이면서도 구변이 좋아 그럴사하게 사탕발림을 하는자, 성품은 흉악한데 기억력이 좋고 다박다식한체 하면서 사람들을 끄는자, 독재와 부정을 일삼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그럽고 청렴한체 하는자는 인간사회에서 《악의 인물》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청계재단》과 내곡동집터사건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은 부정과 기만, 협잡과 사기로 재산을 모으고 살아온 파렴치한자라는것을 다시한번 알게 되였다.

3. 인민은 《실용정부》를 심판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과 한 공약을 송두리채 줴버리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쑈폭압 등 반역정치에만 미쳐돌아가는 《실용정부》패당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근로대중은 더는 이대로 살아갈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공약실행을 요구할것이 아니라 리명박을 민심의 심판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한결같이 웨치고있다.

남조선의 모든 지역, 모든 계층에서 울려나오는 단호한 웨침속에는 인민을 기만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반역자, 정치간상배, 권력광신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드틸수 없는 진리가 담겨져있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2011년 2월 25일은 리명박이 청와대에 들어앉은지 3년이 되는 날이였다.

이날 야당들과 시민단체들,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은 서울시청앞광장에서 《리명박심판 국민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4.19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땅은 리승만정권때와 다르지 않다. 못살겠다, 갈아엎자.》고 하면서 투쟁기세를 올렸다.

못살겠다 갈아엎자.

이는 민중을 기만하는 리명박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으며 다시는 속을수 없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센 의지와 결의이다.

표로 심판하자

리명박집권말기인 오늘 남조선인민들 누구나 벼르는 다짐이 있다. 한마디로 표로 리명박을 심판하자는것이다.

《대통령선거》때 리명박에게 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절

대다수가 《믿고 뽑아주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줄 몰랐다. 내자신이 저주럽고 이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다음번 선거에서 복수하겠다. 표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있다.

리명박을 용서할수 없고 결판내려는 남조선민중의 분노는 이미 여러차례의 《국회》의원보충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남김없이 폭발되였다.

2009년 4월말 남조선에서는 《국회》의원보충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리명박의 《실용정부》가 들어서 처음으로 진행된 보충선거로 남조선정국과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

리명박과 그 패거리들은 《대통령선거》와 한해전의 《국회선거》때처럼 현란한 공약들을 내흔들며 선거자들을 유혹하려 하였다. 하지만 1년간의 《실용정부》악정에 쓴맛을 볼대로 본 남조선인민들을 속일수는 없었다.

결국 인천의 부평구를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의 다섯곳에서 치르어진 선거에서 리명박패들은 모조리 떨어지고 야당과 무소속후보들이 당선되였다.

이 선거는 비록 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보충선거였지만 집권 1년이 넘는 리명박당국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

격을 띤것으로 하여 남조선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반역과 독재를 일삼던 보수집권세력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었으며 매국반역정책으로 인민을 배반하면 단호한 배척과 버림을 받게 된다는 진리가 다시한번 확인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한결같이 이 선거를 당시 《한나라당》의 위기경보, 민심의 차거운 반응, 더할나위 없는 랭정한 심판으로 평가하면서 《실용》당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더 큰 패배를 당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오만하고 안하무인인 리명박은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인민적정치, 반역정책을 걷어치울 대신 그를 더욱 강행하는 길로 나갔다.

남조선민중은 다시한번 분노로 불타올랐다.

2010년 6월 2일 남조선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도, 시, 군, 구 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제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심판을 내건 진보개혁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진보개혁세력은 남조선의 16개 주요 시, 도의 시장, 도지사선거에서 인천시와 광주시,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남조선강원도의 7개 지역에서 승리하였으며 서울

의 25개 구청장자리가운데 21개를 차지하였다.

또한 진보진영의 무소속후보들이 제주도와 경상남도에서 도지사로 당선되였다.

지방자치제선거결과는 친미사대와 파쑈독재에 광분한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단호한 징벌이며 준엄한 철추였다.

이 선거에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극도의 궁지에 몰린 리명박패당은 내각총사퇴, 여당지도부총사퇴, 청와대비서실 집단사표 등 대혼란에 빠져들었다.

리명박《정권》을 심판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재보충선거에서도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리명박패당은 어떻게 하나 이 선거에서만은 이겨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했지만 과반수의 서울시민들은 리명박심판을 구호로 내건 무소속후보를 지지당선시켰다.

선거를 지켜본 외신들은 이는 리명박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 민주와 평화를 지키려는 민심의 분출, 독선과 오만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널리 보도하면서 리명박이 남조선인민들의 표의 심판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선거표로 이제 또 한번 반역도당을 무

섭게 응징하리라 벼르고있다.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초불함성

리명박이 《대통령》자리에 앉은 후부터 남조선에서는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타오른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초불이다.

초불은 남조선보수당국의 매국반역적정체를 폭로하고 반인민적악정에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분출이다.

2008년 남조선의 전역에서는 거대한 초불바다가 펼쳐졌다.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인천과 제주도 등 어디서나 초불이 타올랐다.

이것은 외세에 굴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통채로 미국산 미친소병의 침입앞에 내맡긴 리명박에 대한 민심의 폭발이였다. 초불시위에는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남조선의 각계층 연 수백만이 참가하였으며 서울에서만도 여러차례의 100만초불시위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친미사대를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생명도, 수십만 남조선축산농가들의 생존권도 서슴없이 버리는 리명박의 매국배족적죄행을 규탄하면서 민중이 떨쳐일어나

반역자들을 심판할것을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또한 민족의 자주권을 우롱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유린하며 초보적인 삶의 요구와 권리도 무자비하게 짓뭉개는 독재의 무리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초불을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갈것을 다짐하였다.

파쑈독재정권을 배격하고 심판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시위와 집회는 달과 해를 넘으며 끝없이 이어졌다.

쌍룡자동차로동조합, 철도로동조합, 화물련대로동조합, 한진중공업로동조합 등 일할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마당에도 초불은 타올랐다. 보수패당의 살인만행으로 죽어간 룡산철거민들과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두 전직《대통령》을 비운의 죽음에로 몰아간 추모마당에도 초불은 켜졌으며 대결과 불신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사태로 몰아간 남조선당국자의 반통일적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투쟁의 마당에도 초불은 불타올랐다.

초불은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언론인, 회사원, 종교인을 막론하고 어느 계층, 어느 계급에서나 지펴졌으며 꺼지지 않았다.

2009년에만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벌린 주요초불투쟁건수는 연 1 300여건, 참가인원수는 연 700만명, 참가

단체수는 1만여개에 달하였으며 2010년에는 그 수가 1.5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2011년에도 남조선 각계층의 대중적인 초불집회와 시위는 계속되였다.

5월말부터 7월초까지 남조선에서 일어난 각종 반《정부》투쟁은 400여건, 참가단체수는 연 1 300여개, 투쟁참가자수는 연 60만 7 000여명에 달한다.

이것은 전해의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투쟁건수에서 4배, 참가단체수에서는 3.5배, 참가자수에서는 10배나 더 많은것으로 된다.

2011년 6월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는 6월인민항쟁기념일을 계기로 각계층이 참가한 대중적인 초불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대회를 시작한지 한시간도 못되여 참가자수는 1만명을 넘어섰고 나중에는 무려 5만여명으로 치달았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초불시위를 시작한지 열흘만에 참가자수가 1만 5 000여명으로 늘어났던것과 대비해볼 때 매우 폭발적인것이여서 집회조직자들조차도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초불대회참가자구성을 보면 대학생들과 30~40대의 시민들로부터 교복을 그대로 입고 나온 중, 고등학교 학생들, 로동자, 사무원, 배우, 가정주부, 70~80대로인들, 야

당대표들과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각계층이 다 망라되였다.

초불대회참가자들은 《더이상 지켜볼수 없어 나왔다》, 《2008년 초불시위가 제2의 6월인민항쟁이였다면 이번 초불시위는 제3의 6월인민항쟁이 될것이다》, 《학생주권을 거짓말정권에서 빼앗아오자》, 《리명박정권을 끝장내자》,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 등의 구호를 웨치였으며 일부 대학생들은 청와대를 향해 기습시위를 전개하였다.

언론들은 시위소식을 전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초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시민들의 분노가 드디여 폭발하였다.》, 《집권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다 모였다.》고 대서특필하였다.

한편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 등 각지에서도 《6.10국민초불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였으며 특히 부산시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리명박심판부산시민대회》를 열고 앞으로 계속 대규모초불집회를 가질것을 결의해나섰다.

남조선시민들과 대학생들의 대규모초불집회에 당황망조한 리명박패당은 잘못 다쳤다가는 폭발적인 사태가 터진다고 아우성치면서 경찰당국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물리

적충돌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민을 우롱하고 민중을 배반하며 민족을 반역하는 리명박역도를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기 전에는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속에서 항거의 초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것이며 우렁찬 초불합성은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민심 《청우계》 - 여론조사

하늘이 흐리고 우뢰가 잦으면 비가 쏟아진다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지금 남조선의 민심《청우계》인 여론조사들은 반역배들을 분노와 증오의 큰물로 쓸어버리려는 장마비가 내리려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리명박과 그 패당들은 《대통령선거》와 《18대국회의원선거》에서의 지지률을 꺼들며 어떤짓을 해도 일없는것처럼 거들먹거리였으며 사회여론의 비판의 목소리에 방패막이로 여론조사결과들을 내들군 하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여론조사들이 리명박일당의 장담과는 정반대로 반역도당을 폭발해버리려는 남조선민심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리명박이 권력을 잡은 날을 전후하여

해마다 진행하는 여론조사들에는 각계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리명박감정이 직접 반영되고있다.

2009년 2월 남조선신문 《경향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에 응답자의 80.3%가, 《인사정책이 잘못되였다.》에는 72%가, 《살림살이가 나빠졌다.》에 52.6%가, 《남북관계악화의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에는 69.8%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현시점에서 대통령선거를 다시한다면 리명박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대답도 64.9%나 되였다.

리명박이 집권한지 3년이 지난 2011년 2월에 진행한 여론조사는 더욱 험악하다.

남조선신문 《국민일보》가 남조선 사회여론연구소와 벌린 공동여론조사결과 리명박의 국정수행평가는 《잘못하고있다》가 51.4%, 《살림살이가 나아진것이 없다》가 91.3%였다. 3년간의 리명박의 국정수행평가를 묻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의 여론조사에서도 《잘못했다》가 각각 53.6%, 55%였으며 과반수이상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대답하였다. 《동아일보》의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리명박《정권》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경제성장, 북남관계, 빈부격차해소를 꼽았다.

남조선신문 《한겨레》 2011년 2월 21일호는 이렇게 전

했다.

《여론조사결과 역시 MB정부에 대해서는 불신이 극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MB정부는 믿을수 없는 불공정한 정부라는 말이다.》

《시사져널》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6월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남조선당국자가 《잘못하고있다.》는 부정적답변은 52.3%였다.

2012년 2월 리명박은 그 무슨 《취임 4주년특별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자화자찬을 벌려놓았는데 그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긴급조사에서는 이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공감한다는 대답보다 더 많았다. 또한 60%가 넘는 사람들이 리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금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안에서까지 19대《총선》과 《대선》에서 저들이 반드시 패배할수밖에 없을것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여당것들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아무리 각종 여론조사들을 진행하여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보다 훨신 적게 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지역에서 여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보다 민주개혁정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며 보수세력의 지반이라고 하는 경상도지역에서까지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여당후보지지자보다 무려 10%나 더 많았다. 특히 남조선의 20대, 30대, 40대와 자영업자, 사무원들속에서 리명박에 대한 반감이 평균 50%이상에 달하고있다.

이에 대해 극우보수세력들은 리명박에 등을 돌려댄 민심을 되돌릴 대안은 더이상 없다고 한탄하고있다.

민중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삼은 보수패당에 차례진 응당한 결과이다.

남조선에서 울려나오는 여론조사결과들은 내리막길에 들어선 리명박《정권》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민심《청우계》 여론조사가 가리키는대로 리명박일당이 민심의 홍수에 수장될 날은 멀지 않았다.

버림받은 《실용정부》

사회적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무서운것은 대중과 사회의 버림을 받는것이다. 특히 정치가에게 있어서 인민의 믿음을 잃고 버림을 받는 것은 곧 정치적수명의 끝장을 의미한다.

리명박의 정치적수명은 오늘 마감을 가까이 하고있다. 그뿐아니라 정신, 도덕, 자질, 량심 등 인간적인 모든것이 끝이 나고있다.

인민을 속이고 민족의 요구를 배신하고 인간의 체모마저 잃어버린 반역자의 응당한 말로이다.

달아나는 측근들

한배에 탄 운명이라는 말이 있다.

드넓은 바다에 떠있는 배안의 사람들은 삶도 죽음도 같이할수밖에 없다는 말로서 한마음으로 뭉쳐 힘든 고비를 뚫고나가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진 성구이다.

하지만 정치적리해관계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결탁된

리명박의 《실용》패거리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

지금 민심의 거세찬 풍랑으로 실용정부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배가 침몰하게 되면 먼저 도망치는 쥐무리처럼 한때는 리명박에게 붙어 아부하던 측근들이 저만 살겠다고 슬금슬금 내빼고있다.

앞장에는 리명박이 믿고있던 여당것들이 서있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리명박을 로골적으로 멀리하고있다.

그것은 리명박과 밀려돌아가다가는 앞으로 있게 될 《총선》에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패들은 마치도 자기들은 리명박과 차이가 있는것처럼 놀아대고있는것이다.

이 과정은 이미 2011년부터 시작되였다.

2011년 7월 4일 《4. 27재보선실패》의 책임을 지고 나떨어진자들대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한나라당전당대회》(당시)가 벌어졌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 남조선언론들은 친리명박계의 지지를 받는 원희룡이 대표로 선출되거나 적어도 2위로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립파로 불리우는 홍준표가 1위를, 친박근혜파인 류승민이 2위를 하

였으며 원희룡은 겨우 5위에 턱걸이를 하는 상상외의 일이 벌어졌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를 《리명박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 여권의 추세》가 본격화된 현상으로, 여당내에서의 《리명박탈출》의 《도미노사태》의 한 과정으로 평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였다. 이보다 앞서 《원내대표경선》이 진행되였는데 여기서는 리명박과의 거리두기를 선언한 황우려가 《원내대표》로 선출되였던것이다. 황우려는 《원내대표》로 되자마자 리명박이 실행을 거부한 《반값등록금공약》,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삭감》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이를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겠다고 선포하여나섰다.

이렇게 되자 리명박과 청와대것들은 이에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마이동풍격이였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리명박과 공개적인 대결로 나갔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근혜는 측근들을 부추겨 련이어 리명박을 공격하게 하고있으며 《의원공천권》을 쥔 기회를 리용하여 친리명박계인물들을 대량적으로 떼여버렸다.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들도 리명박과 결별하지

않고서는 4월《총선》에서 살아남을수 없다고 로골적으로 표방하고있다. 이들은 정책토론회나 기자회견, 선거운동들에서 이전과 달리 리명박의 공약과 정책들에 대해 반대와 수정을 드러내놓고 하고있으며 리명박과 측근인물들을 비난하는 언행도 거리낌없이 하고있다. 지어 리명박이 빨리 탈당하여 제 할 일이나 하라는 목소리까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신문들은 《임기말 여당내에서 청와대와의 리별가가 류행가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때리기가 점점 로골화되고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당내부에선 공공연하게 레임덕 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시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여당내에서는 선거를 위해 해야 할것이 MB와의 단절뿐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전했다.》고 전하고있다.

또한 《리명박은 뜨거운 감자이다. 손을 데면서까지 그를 비호할 여권의 충성파들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고 보도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리명박측근들로 불리우던자들중에서도 리명박에게 등을 돌려대고 뛰쳐나가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원인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리명박

과 계속 붙어돌아다니면 정치무대에서 살아남지 못할것이라는 우려로부터 발생된 리탈이라는것이 정치분석가들의 결론이다.

골이 난 리명박이 자기와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만 남고 일찌감치 없어지라고까지 화풀이를 하면서 위협했지만 측근들의 탈리명박흐름은 끊어지지 않고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쓴 글을 보면 가라앉는 《리명박》호의 운명을 확연히 알수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여권정치인들의 운명은 분명 암흑기이다. 언젠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증이 떠돈다.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 립장에선 모골이 송연한 결과다.

여당의원들이 일방독주식 리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번번이 반기를 들고 나서는것도 이런 절박함때문이다. 리명박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자신의 금배지가 날아갈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그들모두를 지배한다. 살길은 리명박으로부터의 36계줄행랑이 최선이다.》

여당과 측근들까지 배반하고 달아나는 리명박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거세지는 《하야》요구

《하야》란 자리를 내놓는다는 뜻이다.

1960년 3. 15부정선거를 계기로 터진 대중적인 4. 19인민봉기로 더는 권력을 유지할수 없게 된 리승만은 미국의 압력과 배후조종밑에 《하야》하여 하와이로 도망쳤으며 이후 《하야》는 남조선에서 파쑈독재자들을 저주규탄하고 배격하며 물러날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대명사로 되였다.

《실용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리명박에 대한 《하야》요구는 남조선에서 대세로 되고있다.

남조선정치계와 언론들에서 리명박의 《하야》를 거론할때마다 자주 튀여나오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있다.

자본주의정치의 대명사인 《레임덕》(lame duck)은 영어로 《절름발이오리》라는 뜻으로서 정치인들의 통치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레임덕》의 유래를 보면 18세기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당시 런던증권시장에서 빚을 갚지 못하여 시장에서 제외된 증권거래원을 가리켜 《경제적불구자》, 《무능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레임덕》이라고 불렀

다.

그후 《레임덕》은 19세기 미국에서 정치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레임덕》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통령의 임기말이나 여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 통치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있다. 즉 권력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자들을 가리키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당국자들도 《레임덕》을 숙명처럼 겪어야 하였다. 그러나 리명박처럼 임기중반부터 《레임덕》을 겪은자는 일찌기 없다.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외교, 북남관계 등 어느 분야나 할것없이 리명박은 일대 통치력마비상태에 빠져있으며 가는 곳마다 불신과 거부만 받고있어 《실용정부》패거리들을 당황케 하고있다.

남조선야당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지어는 극우보수세력들속에서도 《레임덕》에 빠진 리명박《정권》은 당장 《하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발치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동북아의 문》은 2011년에 이렇게 썼다.

《리명박정부가 집권한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

금도 국민들의 삶은 고통의 련속이다. 전세대란과 물가대란에 그야말로 살아남는것자체가 인생의 목표로 되여버린 씁쓸한 오늘이다.

국민들은 리명박정부를 단호히 거부한다. 리명박정부는 반민족적행태에서, 반서민적행태에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

리명박은 련이어 터져나오는 각종 권력형부정부패로 이미 2010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선거법상 2013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여있지만 그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업무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질수밖에 없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고집한 대가는 <하야>밖에 없다.》

남조선의 광범한 대중은 《실용정부》의 《레임덕》은 정치깡패, 권력광신자, 야심가, 변절자, 음모군들을 측근들로 끌어들이고 반인민적통치를 강행한 결과라고 규탄하고있다.

그러면서 《실용정부》하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성하면 《국회》의원, 인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언론관련법》을 강행처리할수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강경대응하면 경찰청 청장, 《정

권》의 나팔수가 될수 있으면 KBS 사장, 로동자들의 요구과 립장을 무시하고 협박과 100만해고설 등 각종 류언비어를 류포하면 로동부 장관, 남조선농산물보다 미국농산물을 더 강조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복지예산을 깎고 서민들의 주요생활필수품들에 죄악세(죄를 들씌우는 악한 세금)을 적용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탈세를 잘하면 《국세청》 청장, 탈법을 잘하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겨봐야 법을 어긴자들에게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것이라고 생각하면 법무부 장관, 통일부페지를 주장하고 통일을 반대하면 통일부 장관, 민족문화발전에는 등을 돌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의 균형적발전보다는 당국자가 추진하고있는 《4대강정비사업》선전에 앞장서면 국토해양부 장관, 부정부패의 왕초이자 당국자와 한통속이면 《국무총리》,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친일파이면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였다고 하면서 이런 《실용》독재미치광이들을 긁어모은 리명박은 이미 《하야》해버렸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리명박《정권》에 대한 《하야》요구는 극우보수세력들속에서도 울려나오고있는데 이들은 리명박의 집권당시 《보수의 시대》가 10년은 갈것으로 예상했는데 5년안에 끝날것 같다고 하면서 현 《정권》의 통치실패가 그대로 보수

의 실패로 이어지고있다고 아우성치고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울려나오는 리명박《하야》의 요구는 《실용정부》의 종말이 멀지 않았으며 그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다는것을 의미있게 시사하고있다.

차넘치는 풍자, 비발치는 조소

남조선신문, 방송, 인터네트들에는 리명박을 비난하는 글들과 만화, 동영상들이 폭포를 이루고있다.

어느 하루도 리명박에 대한 풍자와 조소의 글과 시, 노래, 만필, 만화들이 없는 날이 없으며 그를 조롱하는 하는 만담, 웃음극, 유모아, 어리광대극이 차넘치고있다. 리명박에 대한 비난과 풍자, 야유가 없으면 신문, 방송이 팔리지 않고 인기가 없을 정도이며 리명박이 없으면 만평과 풍자소품, 익살극의 그림과 대본을 쓰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남조선에 차넘치는 리명박에 대한 풍자사태는 폭발직전에 이른 민심의 저주와 규탄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3에 비낀 민심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수자 3을 사랑해왔다.

특이한것, 기념할것, 교훈적인것, 길이 전할것 등을 수자 3에 담아 풀이해왔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을 수자 3에 비겨 풍자조소하고있다.

2011년 3월 리명박의 집권 3년을 총화하는 글들에서 남조선언론들은 《민주주의위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를 가져온 악몽같은 3년》, 《파렴치와 후안무치, 몰렴치의 3년》, 《무능과 구걸, 국제적망신으로 이어진 3년》, 《희망자체를 버린 지옥같은 3년》이라고 규탄하였다.

무능과 무책임, 무모함으로 일관된 《3무정권》, 외교는 굽신, 경제는 불신, 북남관계는 망신의 《3신정부》, 물가대란, 실업대란, 외교분란의 《3란정부》, 인사는 날치기, 경제는 망치기, 외교안보는 뒤북치기의 《3치기정부》 등 별의별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리명박《정권》을 장식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리명박의 반인민적시책과 파쑈

폭압통치, 사대매국적인 반통일책동을 3자와 결부하여 비난한 민심글들의 일부를 보기로 하자.

《3공화국》

남조선의 각계층은 리명박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서민중심의 복지정책》을 떠들고있지만 실지로는 1%밖에 안되는 특권족속들만을 위하고 절대다수 주민들의 생활을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리명박《정권》은 언론시장과 은행을 통채로 재벌에 넘겨주어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파산당하여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재벌공화국》이며 《신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반《정부》적인 요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함으로써 국민이 봄계절을 맞아도 따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포속에 떨면서 지내야 하는 《겨울공화국》이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선지방발전—후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내던지고 지방주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발전》만 불도젤식으로 내밀고있는 《서울공화국》이라고 규탄하고있다.

《3치정권》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10년을 방패와 곤봉으로 무자비하

게 짓뭉개는것이 《리명박정권의 시대정신》이라고 야유하면서 리명박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세울것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요구는 외면하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떡볶음이나 먹어보고 배추통이나 사주는것으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나누는 흉내만 내고있는 그야말로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몰렴치한 청맹과니정권》이며 공권력을 동원하여 룡산철거민들을 학살하고도 《민주질서수립》을 운운하는 《파렴치한 인면수심(사람의 허울을 쓴 짐승)정권》이며 앞에서는 북동포를 제일 생각하는것이 남쪽이라고 침발린 소리를 줴치고 돌아앉아서는 미국과 한짝이 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는 《후안무치한 무대뽀(리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것)정권》이라고 신랄히 비난하고있다.

《3탕정책》

남조선 각계층은 리명박《정권》이 경제와 교육을 살리겠다고 떠들면서 수많은 공약과 정책들을 람발하였지만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대학입학자률화정책》에 이어 《일제고사정책》을 내놓고 또다시 《사교육비경감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교육의 시장화를 노린 《3탕정책》에 불과하며 《한반도대운하정책》에 이

어 《4대강살리기정책》을 내놓고 또다시 《록색성장5개년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한것도 역시 경제살리기는 고사하고 극심한 환경파괴만을 초래하는 《3탕정책》이라고 비난하고있다.

《3대위기》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실용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은 파쑈독재통치로 《민주주의위기》를 불러온것이며 반인민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것이며 북남대결정책으로 최대의 《안보위기》를 몰아온것뿐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직면하고있는 심각한 《3대위기》의 주범은 리명박이라고 규탄하고있다.

이밖에도 《리명박집권 3년은 국민과 철저히 유린된 나홀로 3년, 국민무시 3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악몽같은 3년 이다.》, 《리명박은 인민들에게는 미친개처럼 사납고 북의 동족에게는 대결미치광이고 미일상전들에게는 꼬리를 젓는 삽살개의 3개 낯짝을 가지고있다.》, 《대통령을 믿는 사람과 정부정책을 곧이듣는 사람, 검찰수사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이 3대바보이다.》, 《리명박은 독선, 독단, 독주의 3독으로 일관된 독

재적통치방식의 달인이다.》는 비난도 퍼지고있다.

3자풀이에 의한 조소와 비난은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널리 퍼지고있는데 2009년 7월 한 재미동포인사는 남조선 당국자가 좋아하는 3가지와 모르는 3가지에 대한 글을 썼다.

그에 의하면 리명박이 좋아하는것은 첫째로 전쟁, 둘째로 미국에 대한 아부, 셋째로 민중들과의 《쇠몽둥이 대화》이며 모르는것은 첫째로 외교, 둘째로 경제, 셋째로 우리 민족끼리의 화합이라는것이다. 이것을 좀 풀어 말한다면 리명박은 인민들이 배격하는 전쟁과 친미매국, 파쑈칼부림을 좋아하고 반대로 인민들이 잘할것을 요구하는 자주외교, 자립경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다 망쳐놓는다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널리 퍼지고있는 3자풀이로 보는 리명박에 대한 풍자와 규탄은 인민의 버림을 받은 매국반역자들에게 차례진 응당한 규탄이고 조소이다.

《MB》풍자유모아

2010년 12월 31일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지난 10년동안 당신을 웃게 한 사람을 한명만 꼽으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무기명투표를 하게 하였는데 리명박이 단연 1위로 꼽혔다. 기쁨과 만족의 웃음이 아니라 리명박이 노는 꼴이 너무나 한심하고 기가 막혀 쓴웃음이 하도 많이 나와 첫 순서로 꼽았다는것이 응답자들의 하나같은 대답이였다.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독재통치를 부활하였으며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켰으며 북남관계를 대결과 분렬로 몰아간 리명박《정권》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혐오는 이와 같이 남조선사회에서 차넘치는 풍자와 조소, 쓴웃음에서도 쉽게 찾을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소통부재정권》, 《국민무시정권》, 《신관치정권》, 《삽질정권》, 《안보무능정권》 등 별의별 별명들로 《실용정부》를 조롱하고있다.

2009년 남조선인터네트에서는 《명박산성》과 《명박도》 이야기들이 나돌아 화제거리로 되였다.

《명박산성》은 리명박이 2008년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여 거리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대형집함들을 성벽처럼 높이 쌓아 탄압한데서부터 생긴 이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건축된 명박산성》, 《실용정권이 축조한 력사적인 건축물》, 《명박산성과 물대포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탄압도시 서울》 등으로 야유하였다.

《명박도》는 남조선인터네트에 실린 글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시나요?》에서 나온 섬이름이다. 리명박이 세웠다는 그 섬에는 물도 먹지 못할 물이고 모든게 다 독이 들어있으며 죽음의 재까지 뿌려져있어 섬에서 살던 사람들이 전부 멸족되고 섬이 망하여 후세에 전설로만 남았다는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섬의 모든 지명과 배, 항구, 산, 음식, 샘물, 농작물 등의 이름들이 모두 《실용정부》의 장, 차관 등 리명박과 그의 측근인물들의 이름을 딴것인데 풍자가 신통하고 해학적이면서도 남조선의 오늘의 현실과 꼭같아서 만화와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널리 퍼졌다.

또한 남조선의 인터네트에는 이런 내용의 유모아도 실렸다.

어떤 사람이 이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하게 되였는데 전임자가 3개의 봉투를 주면서 《위급한 일을 당하면 순서대로 열어보시오.》라고 하였다.

새 《대통령》이 집권하여 위기에 맞다들자 전임자가 준 봉투가 생각나 첫번째 봉투를 뜯어보니 《모든 책임을 전임자에게 전가하시오.》라고 씌여있었다.

그것을 보고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

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였다.

그러다가 또다시 위기에 처하자 두번째 봉투를 열어보니 《모든 책임을 장관에게 문책하시오.》라고 적혀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그런데 세번째 위기를 만나 마지막봉투를 열어보니 《이제 3개의 편지를 모두 후임자에게 넘겨주시오.》라고 씌여있었다는것이다.

이는 대중앞에 한 공약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리명박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그대로 보여준다.

리명박에 대한 민심의 혐오와 조소는 정신병원유모아에서도 잘 나타난다.

어느날 리명박이 한 정신병원을 찾았다. 병원안의 정신병자들이 일제히 그를 보고 《만세》를 불렀는데 한사람만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상히 여긴 리명박이 원장에게 저 사람은 왜 만세를 부르지 않는가 물었더니 그는 그날 아침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는것이다.

2009년 2월에는 인터네트에 《미래4년고난》이라는 동영상이 퍼져 인기를 끌었다.

동영상은 《리명박은 주가폭락이라는 음악을 즐겨듣고

재벌이 날라다주는 꿀을 좋아하며 광우병에 담긴 반민주를 즐겨먹고 안주로 BBK를 좋아한다.》면서 《부자들은 신난, 서민들은 가난, 미래소년 고난》이라고 리명박의 허황한 공약들을 폭로조소하였다.

리명박을 풍자하는 노래 역시 인기를 끌고있는데 2009년 3월에는 《우리반 반장 리명박》이라는 노래가 퍼졌다.

노래는 반장 리명박이 사람들을 죽이고 마구 탄압하는 것도 다 반(정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서 《실용정부》의 반인민적악정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남조선의 한 주민은 《2MB탄핵송》(탄핵노래)을 만들어 《지금의 현실을 참다못해 노래를 만들었다》는 글과 함께 인터네트에 올렸는데 며칠사이에 52만 9 000여명이 복사해갔다.

2010년 7월 남조선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네트에 《명박일보》라는 신문이 출현하였는데 그 첫 뉴스가 특종보도로 《리명박사망!!!》이라는 제목과 《리명박 사망하다!!》, 《시민들 기뻐하다!!》라는 부제목을 달고 집권자에 대한 부고를 낸것이다.

이것은 물론 풍자이지만 남조선당국자의 반인민적정책과 악정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인터네트들에는 《MB퇴임시계》를 비롯하여 리명박을 비난, 조소, 고발하는 전문싸이트들이 수많이 개설되였으며 KBS방송이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네트사용자 질문란》을 마련하자 순식간에 근 2만명의 사람들이 《그냥 사퇴하면 안되는가》라는 글을 올려 당국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2009년말 녀성들이 운영하는 인터네트싸이트가 각계에서 가장 듣기 싫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꿰매고싶은 입》후보를 선정하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여기서도 리명박이 단연 1등으로 당선되여 《재봉틀상》을 받는 희비극도 벌어졌다.

리명박《정권》을 풍자조소하는 글과 별명은 하루가 멀다하게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데 일부를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구 강행한다고 하여 《막무가내정부》, 무엇이든 거꾸로만 하고 강을 파헤치기만 좋아한다고 하여 《청개구리정부》,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부정부패가 계속 터져나온다고 하여 《양파정부》, 《시궁창정권》, 《미국에겐 좋은<분>, 일본에겐 례의바른<분>, 국민에겐 쓸모없는 놈》이 있는가 하면 친미친일사대매국행위에 대해서는 《미친외교》, 《굽신외교》, 《망신외교》, 《등신외교》, 《조공외교》, 《구걸외교》, 《깡통외교》

등 갖가지 오명이 다 차례지고있다.

남조선당국자의 이름에 빗댄 야유도 비발치고있다.

한 미술가는 리명박을 쥐에 비교한 광고를 그려 인기를 끌었는데 《쥐박이》, 《개박이》라는 별명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사람들은 리명박을 쥐박이로 부른다.》고 하면서 쥐는 인간에게 각종 병균을 옮기고 어둠과 정적을 틈타 량식을 축낸다, 쥐의 더럽고 간교한 모양이 대중의 분노와 만날 때 《쥐새끼》가 되고 야유의 말놀이에서《쥐박이》가 나온것 같다고 썼다.

운명이나 팔자가 기구하고 복이 없다는 의미가 《명박하다》는 말로 윤색되여 번져지고있으며 리명박의 말바꾸기와 거짓말은 거의 병적인 수준인데 이것은 그의 이름자체가 영문표기로 《MB Lee(Most Best Liar)》서 《가장 뛰여난 거짓말쟁이》이라는 뜻때문이라고 해석한 글도 나오고있다.

지식인들은 리명박의 지적수준이 콤퓨터에서 가장 작은 용량을 표시하는 《2MB(메가바이트)》밖에 안된다는 의미에서 당국자의 이름을《2MB》라고 야유풍자하고있으며 《1TB시대에 2MB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세상은 빛속도로 발전하는데 리명박정권은 빛속도로 후퇴한다.》고 조

소하고있다.

청년들은 리명박의 일자리공약을 《이구백》(20대의 90%는 백수), 《장미족》(장기미취업 졸업생), 《삼일절》(취업은 31세에 끌), 《이퇴백》(스스로 퇴직한 20대), 《메뚜기 인턴》(좀더 나은 자리로 옮겨다니는 실습생), 《삼초땡》(30대 초반이면 퇴직) 등의 풍자어들로 조소하고있다.

시위현장들마다에서는《리명박 다트(시계의 눈금처럼 점수가 매겨져있는 둥근 모양의 과녁에 화살을 던져 맞힌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놀이의 하나)》에 새겨진 《건강보험》, 《국민년금》, 《대운하》, 《가스》, 《물》 등 총 10개의 단어중 남자는 8개, 녀자는 7개를 맞히면 《사람답게 평등하게》라고 적혀있는 T샤쯔를 무료로 주는 풍자놀이가 류행되고있다.

또한 곳곳에서 커다란 재해를 발생시키는 장마비에 빗대여 《나라를 망치는 MB(엠비)가 이제는 그쳤으면 좋겠다.》고 야유조소하고있다.

2010년 10월에는 부산에서 리명박《정권》때문에 못살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보수패당으로 인한 민생파국상을 아수성치며 터뜨리는 세상에 없는 《MB시대 아우성대회》까지 열렸다.

리명박뿐아니라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론문표절 등 온갖 부패범죄를 일삼는 《정부》의 장, 차관들과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들 등 졸개들도 조소대상이 되고있는바 이들에게는 《부정부패의 종합백화점》, 《경찰청렴은 백년하청(100년동안 물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 《성부패 종합세트》, 《새누리당은 비리백서》 등의 수치스러운 별명들이 붙여지고있다.

리명박에 대한 비난과 조소의 물결은 어린이들에게도 퍼지고있는데 《명박이를 잡자 명박이를 잡자 찍찍찍》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명박이 쥐잡이놀이》가 류행되여 청와대것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력사에는 인간적품성이 결여되고 악정과 폭압, 부패와 사치를 일삼은 권력자들에 대한 인민의 풍자와 조소, 희극의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에서처럼 집권자에 대한 풍자와 야유가 사회적인 흐름으로, 일상화된 사실로 된적은 일찌기 없다.

리명박풍자와 야유, 조소의 파도들은 말기암환자에 이른 《실용정부》운명의 가련함과 비참성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정확한 진단이며 되돌릴수 없는 민심의 단호한 결단이다.

맺 는 글

오늘 리명박《정권》은 사멸직전의 말기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의 불길에 타버릴 운명에 처해있는것이다.

사회정치적으로, 도덕정신적으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더더욱 깊숙이 빠져들고있는 리명박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집권말기에 이르러 허위와 회유, 폭압과 음모에 더더욱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정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력사의 흐름은 결코 되돌려세울수 없다.

인민을 기만한 리명박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앞에서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폭발직전에 이른 남조선민심의 화약고는 남조선집권당국을 올해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에서 반드시 대폭발시키고야말것이다.

공약과 기만

저 자	**배 영 일**
편 성	조 은 주
장 정	박 봉 혁
교 정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월 일
발 행	주체101(2012)년 월 일